

[후속보도] >> 3면
국제학사 무인택배실

[특별심층] >> 6-7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옳은 선택을 위해선

[사회문화] >> 8면
물지마 범죄, 사회가 놓치고 있는 것은

[학술] >> 9면
삼성전자 노사 갈등의 핵심은



폴란드학과, ‘故 김용덕 교수 장학금’ 제3회 장학생 선발

지난 7일 강기훈 우리대학 총장(이하 강기훈 총장)과 최성은 폴란드학과 학과장이 ‘故 김용덕 교수 장학회’의 제3회 장학생으로 이도훈 씨(동유럽·폴란드, 이하 이 씨)를 선발하고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故 김용덕 교수(이하 김 교수)’는 우리대학 폴란드학과 제1회 졸업생으로 국내 폴란드 역사 연구 대표 학자 가운데 한 명으로 평가받는다. 김 교수는 생전 폴란드의 △사회·문화△역사△정치분야 연구와 교육에 헌신하며 국내 폴란드학 발전에 기여했다. 지난 2001년에는 우리대학 폴란드어과 교수로 부임해 폴란드와 우리나라의 역사적 유사성에 집중하는 다양한 연구를 진행했다. ‘故 김용덕 교수 장학회’는 ‘故 김 교수의 뜻을 기리고 학문적 성과와 교육 정신을 이어갈 후학 양성을 위해 조성됐다. 장학기금은 고인이 남긴 기금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폴란드어 및 폴란드 지역학 분야에서 우수한 역량

을 갖춘 학생을 지원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제3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 씨는 우수한 학업 성취와 함께 후배들을 위한 폴란드어 멘토링 활동에 꾸준히 참여해 왔으며 교내외 활동을 통해 학과 발전과 전공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 씨는 “‘故 김 교수님께서는 폴란드의 역사와 정치뿐 아니라 오늘날 폴란드 사회와 문화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가르쳐주셨다’라며 “앞으로도 ‘故 김 교수님의 학문 정신을 이어 폴란드를 깊이 연구하는 학자가 되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우리대학 폴란드학과는 지난 1987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폴란드학 전문 학과로서 폴란드어를 기반으로 △문화△사회△역사△정치분야를 아우르는 융합 교육을 운영하며 전문 인재 양성과 학술 및 문화 교류 확대에 힘쓰고 있다.

이나연 기자 12hayeon@hufs.ac.kr

우명균 우리대학 바이오메디컬공학부 교수, 디지털콜럼버스프로젝트 과제 연구책임자로 선정돼

우명균 우리대학 바이오메디컬공학부 교수(이하 우 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2023년도 정보통신 및 방송기술개발사업’ 디지털콜럼버스프로젝트 과제 연구책임자로 선정됐다. 우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수행하는 이번 과제는 과기정통부 지원 사업으로 지난 4월부터 다가오는 2033년 12월까지 약 8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배정된 사업비는 약 34억 원으로 전립선 질환의 조기진단을 목표로 한 의료기기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팀은 실제 임상 및 의료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의료기기 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함으로써 남성의 건강 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는 최옥수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박사과 이효정 이대목동병원 교수가 공동 연구진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선정된 우 교수는 평소 의료

용 RF 하드웨어*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과 독창성을 갖춘 연구자로 의료 영상의 해상도와 정밀도를 향상하는 핵심 기술 개발에 참여해 왔다. 특히 융합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MRI 하드웨어 원천기술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해당 분야는 국내에서 비교적 연구 사례가 드문 분야로 학문적 희소성과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영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 교수는 디지털콜럼버스프로젝트 과제 연구책임자로 선정된 소회에 대해 “지속적으로 진행해 온 전립선 질환 조기 진단 연구를 기반으로 과기정통부의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라며 “팀에서 성실히 연구를 수행 중인 학생들을 포함한 여러 공동 연구진과 함께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다짐을 밝혔다.

*의료용 RF 하드웨어: 라디오파 에너지를 만들고 제어해서 환자 치료나 진단에 쓰는 의료기기 부품과 장비.

강승주 기자 12seungju@hufs.ac.kr



우리대학, 김승규 엔비디아 코리아 대표 초청 '2026 HUFST특강' 개최

지난 19일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백년관 국제세미나실에서 HUFST특강 'RTX AI PC Campus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번 특강은 김승규 엔비디아 코리아(NVIDIA KOREA) 대표(이하 김 대표)가 강의를 맡았으며 △AI를 위한 엔비디아 GeForce RTX*△RTX AI PC 기술 업데이트 및 시연 RTX AI Case Study△현업 AI 개발자의 스토리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강연은 김민정 대외부총장 및 HUFST특강 특별운영위원회위원장 장과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가 공동 기획하고 김덕술(아시아·일본 81) 우리대학 총동문회장이 후원했다. 김 대표는 온 디바이스** AI 생태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엔비디아의 RTX 그래픽처리장치(GPU) 기반 AI PC를 소개했다. 엔비디아 RTX는 AI 연산과 가속 컴퓨팅을 지원하는 GPU*** 플랫폼으로 △고성능 그래픽 작업△생성형 AI△실시간 데이터 처리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김 대표는 "RTX GPU는 게임용을 넘어 AI 개발자처럼 활용할 수 있다"라며 "가지고 있는 기기와 도구를 잘 활용한다면 AI 개발자나 크리에이터로서의 성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허깅페이스(Hugging Face)****와 한국어 특화 엑사원(EXAONE) 3.5 모델과 같은 RTX GPU 기반 AI 워크스테이션 예시들을 소개했다.



강기훈 우리대학 총장은 "AI 시대에는 GPU와 데이터가 새로운 혁신 기반이 되고 있으며 엔비디아는 그 중심에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며 "우리대학 역시 다양한 AI 관련 학과 신설과 언어 기반 AI 융합 교육

을 통해 미래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는 만큼 이번 특강이 학생들에게 AI 산업과 기술의 흐름을 이해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사이버관 대강당에서는 세미나가 온라인으로 생중계돼 양 캠퍼스 학생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설캠 사이버관 1층과 글캠 백년관 1층 로비에서 부스가 진행됐다. 부스에서는 RTX GPU가 탑재된 PC 기반 온 디바이스 AI 데모 체험 부스가 운영돼 학생들이 엔비디아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엔비디아 GeForce RTX: 레이 트레이싱을 활용한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시리즈
**온 디바이스(on-device): 인공지능 연산이 클라우드 서버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 기기 자체에서 직접 처리되는 기술.
***GPU(Graphics Processing Unit): 그래픽과 대규모 데이터를 병렬 처리하는 핵심 장치.
****허깅페이스(Hugging Face): AI 스타트업 서비스로 사전학습(pre-trained) 모델을 무료로 공유하는 플랫폼.

이나연 기자 12nayeon@hufs.ac.kr

우리대학 법인이사회, 이사 후보 추천 철회

지난 20일 우리대학 법인 동원육영회 이사회 이사 후보 추천이 철회됐다. 지난 3월 19일에 공개된 '2026년 제2차 이사회회의의록'에 따르면 김종철 우리대학 법인 동원육영회 이사장(이하 김 이사장)은 △대학 행정·경영·능력·설립자 측과의 원활한 소통△학교 현황에 대한 이해도를 고려해 새로운 이사 후보로 김 이사장의 사위를 추천했다. 추천 자체에는 법적·제도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과거 설립자 친인척 이사 선임 과정에서 학내 혼란이 빚어진 전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국 이날 이사회에서는 차기 이사를 누구로 선출할지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록 공개 이후 당시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제59대 총학생회 박동과 글로벌캠퍼스 제47대 비상대책위원회 Memory는 △성명문 부착△해설 카드뉴스 업로드△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김 이사장의 사위 추천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이후 지난 4월 21일에 진행된 제3차 이사회에서는 △공감대 형성△절차적 정당성 확보△후보자들에 대한 검토 필요를 이유로 이사 선임을 보류하고 차기 이사회 전까지 적합한 후보군을 추천받아 숙의 과정을



거친 뒤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에 참석이사 8인이 전원 동의하였다. 이에 설캠 제60대 총학생회 선명은 차기 이사회인 제4차 이사회가

열리기 전 수차례 피켓팅을 진행해 해당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이후 최종적으로 지난 20일 김 이사장의 사위 이사 선임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일단락됐다. 이에 대해 김하은 설캠 총학생회장은 "다행히 현 시점에서 학생사회가 우려했던 방향으로 이사 선임이 진행되지 않았으나 이것이 모든 문제가 해소됐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법인 이사회가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더욱 무게 있게 받아들이고 향후 이사 선임 및 법인 운영 과정에서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현재우 기자 10jaewoo@hufs.ac.kr

2026 글로벌캠퍼스 대동제, 푸르른 청춘을 추억하다



우리대학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2026 대동제 'SPLASH: Our Brightest Moment'를 개최했다. 이번 대동제는 글캠 제47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Memory'의 주관 아래 진행됐으며 △무대 콘텐츠△부스 콘텐츠△스위터 페스티벌△포토 부스△푸드트럭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대동제 첫날인 18일에는 세계민속문화축전준비위원회와 동아리의 공연으로 중앙공원 1부가 꾸며졌다. 이후 진행된 정기 총회에서는 학생 자치와 관련된 내용을 학우들과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어진 중앙공원 2부에서는 동아리와 아티스트 공연이 펼쳐졌다. 아티스트 키키(Kiki)와 엘라스트(E'LAST)는 강렬한 퍼포먼스로 무대를 장식해 눈길을 끌었다. 아티스트 공연 시 외대인 우선 입장권을 위해 학생증과 신분증 검사를 진행하고 외부인의 입장 시간에 차이를 뒀다. 둘째 날인 19일에는 포토 부스

와 푸드트럭에 더해 워터 페스티벌이 진행됐으며 외대교육방송국 가요제와 중앙공원이 이어졌다. 이후 열린 뮤직 페스티벌에는 Moon Jazz Ensemble와 Band Rosanna가 게스트로 참여해 다양한 커버곡을 선보였고 스탬프 투어 추첨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마지막으로 아티스트 이창섭과 엠비오(AmbiO)의 공연이 이어지며 축제의 열기를 더했다.

교내 곳곳에서는 △단과대학△학교기관△학과가 주최한 주간 부스가 함께 진행돼 다채로운 축제 분위기를 조성했다. 부스는 공과대학부터 왕산 문화예술관 일대 왕복 4차선 도로 구간과 학생회관부터 명수당 도로에 마련됐다. 각 부스에서는 음식과 음료를 판매했으며 국제금융학과와 주식·음양·예측과 같이 각 학과의 특색을 반영한 체험형 콘텐츠도 함께 운영돼 축제 분위기를 한층 더 즐겁게 만들었다. 축제 기간 동안에는 통학버스 차량 통제와 기숙사 24시간 개방이 함께 이뤄져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이번 축제에 대해 우리대학 재학생 A 씨는 "무대 구성과 진행이 알차고 아티스트 무대도 즐겁게 감상했다"라며 "글캠 비대위에서 학생 총회를 포함해 다양한 굿즈들을 준비한 것을 보고 열심히 준비한 노력이 느껴졌다"라고 전했다.

이나연 기자 12nayeon@hufs.ac.kr

우리대학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상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개최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상반기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가 지난 7일 설캠 사회과학관 204호에서 열렸다. 이번 전학대회에서는 제60대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와 독립기구 인준을 시작으로 △특별기구 인준△자치회비 배분율△상반기 총학생회 관련 기구의 활동 계획 보고 등이 이뤄졌다.

총학생회 산하 특별기구로는 △공간운영위원회 △도서관학생위원회△외대동물폐연합회△영양사업단△응원예술위원회△HUFSPORTS가 인준됐다. 특히 응원예술위원회는 기존에 중앙동아리였던 아이기스와 문예갈래협의회(이하 문갈협) 산하 중앙노래패였던 오디오필이 통합돼 새롭게 인준 받았다. 응원예술위원회는 앞으로 두 단체가 지닌 응원과 음악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교내 주요 행사 무대△축제 응원제 기획 및 공연△총학생회의 음악 및 예술 분야 전반을 담당할 예정이다.

반면 인준받지 못하거나 해소된 특별기구도 존재했다. 문갈협의 경우 학생 사회의 문화적 흐름 다변화에 따라 역할 및 필요성이 재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해소 요청 안전이 상정됐다. 해당 안전은 성원 100명 중 △찬성 99명△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다만 기존 문갈협 산하에서 활동하던 외대동물폐연합회가 새로운 특별기구로 인준된 만큼 향후 문갈협의 역할을 계승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생활자치도서관(이하 생자도) 인준안은 부결됐다. 총학생회에서 공개한 전학대회 속기록에 따르

면 생자도는 △세척 미비△아카이빙 불성실△회원 명부 작성 미흡 등의 문제로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생자도 측은 "기강 해이로 인해 아카이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라며 관리 미흡을 인정했다. 이에 대표자 A 씨는 "생자도가 총학생회 산하 특별기구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아카이빙 관련된 부분에서 프로세스가 철저하게 운영돼야 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른 대표자 B 씨는 "전학대회 개최 5시간 전에 인스타 DM을 통해 단위장에게 자료를 요청했다"라며 생자도의 아카이빙에 대한 관심 부족을 지적했다. 결국 생자도 인준안은 성원 101명 중 △찬성 8명△반대 51명△기권 42명으로 부결됐다.

이번 해 상반기 자치회비 배분율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는 교지편집위원회의 재원 사용 문제가 언급됐다. 이후 상반기 자치회비 배분율은 원안인 △총학생회 4,214원△단과대학 및 독립학부 3,741원△동아리연합회 645원△교지편집위원회 2,40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강승주 기자 12seungju@hufs.ac.kr

‘출퇴’로 인한 교권 하락과 학습권 침해, 과연 대학의 낭만일까?

출석하고 튀기(이하 출튀)는 출석만 확인한 뒤 강의실을 떠나는 행위로 매 학기 우리대학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에는 학생들의 무분별한 출퇴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는 글이 반복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출퇴 문화는 대학생들의 낭만과 청

춘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교수의 교권 하락△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면학 분위기 훼손 등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출퇴 문화의 실태 및 반응△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출퇴 문화의 실태 및 반응

지난 4일 에타에 “약 20명의 학생들이 가방이나 교재도 없이 강의실에 들어와 QR 출석체크만 마친 뒤 곧바로 퇴실했다”라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해당 수업을 수강하는 우리대학 재학생 A 씨는 “많은 학생이 무리 지어 출퇴를 했다”라며 “교수님께서 출석 확인 시간에만 사람이 많다고 지적하셨는데도 다시 자리를 비우는 학생들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출퇴의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출퇴와 결석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우리대학 재학생 B 씨는 “결석 네 번만 안 넘으면 F를 안 받기에 자연스럽게 출퇴를 하게 된다”라며 “어차피 e-Class에 강의자료도 다 올라오기 때문에 출퇴를 해도 부담이 적다”고 밝혔다. 우리대학 학칙 제35조에 따르면 매 학기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해 결석한 자는 그 과목의 수험자격을 상실해 F학점으로 처리된다. 하지만 출퇴의 경우 출석이 인정되기에 출석만 확인한 뒤 자리를 비워도 수업에 끝까지 참여하는 학생과 동일한 성적을 받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C 씨는 “같이 수업 듣는 동기 중에 출퇴를 다섯 번 한 친구가 있었는데 딱 한 번 교수님께 걸려 한 번만 결석 처리가 됐다”라며 “결석이든 출퇴든 둘 다 결론적으로 수업을 안 듣는다는 것인데 다르게 평가된다는 게 의문이었다”고 언급했다.

출퇴는 성적 문제뿐만 아니라 수업 운영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외대학보가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출퇴가 수업 분위기와 학습권을 저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20.7%, ‘그렇다’는 응답이 30.8%를 기록해 응답자 절반 이상이 출퇴로 인해 수업 분위기와 학습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이 드러났다. 구체적인 불편 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강

의 집중도 하락△자리 이동 및 출입 소음 불편△조별활동 및 토론 참여 인원 부족 등의 답변이 있었다. 우리대학 재학생 C 씨는 “이번 학기 수강 중인 과목 중에 매번 팀별로 퀴즈를 푸는 수업이 있는데 반복적으로 출퇴하는 학생 때문에 원래 4명이 하기로 했던 활동을 두세 명이 떠난게 됐다”라고 전했다.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이 존재하는 반면 이를 개인의 자유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손종철 우리대학 경제학부 교수는 “출퇴는 부도덕한 행위이지만 대학은 성인이 다니는 공간인 만큼 학생 스스로 출석과 유결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학생활은 스스로 선택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과정을 배우는 시기인 만큼 학생 개인의 책임의식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앞서 언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출퇴는 엄연히 성인이 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며 책임 또한 본인이 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우리대학 재학생 D 씨는 “수업을 듣지 못하거나 토론 및 조별 활동 참여 부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 역시 개인이 감수해야 할 문제인 만큼 출석 시스템 자체를 바꿀 필요는 없다고 본다”라며 “지나치게 엄격한 관리보다는 학생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출결 관리를 강화할 경우 학생들에 대한 과도한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일부 학생들은 대학 수업은 중·고등 교육기관과 달리 자율성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출결 관리 역시 스스로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고 바라본 것이다.

◆나아가야 할 방향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퇴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수의 교권을 균형 있게 고려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학교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인 출결 관리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실제로 연

세대학교(이하 연세대) 교양 과목인 채플(Chapel)은 전자출결관리시스템과 지정좌석제를 통해 출석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에 연세대 재학생 이지영 씨는 외대학보와의 인터뷰에서 “채플은 출퇴하는 학생이 있을 수 없다”며 “용무가 있을 경우에도 조교에게 확인을 받고 이동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반복적인 자리 이동과 중간 퇴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대학 역시 전자출결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출퇴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전자출결시스템의 개편과 지정좌석제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들이 끝까지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의 몰입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외대학보 설문조사 결과 ‘강의 몰입도 개선’을 개선 방향으로 꼽은 응답은 41.4%를 기록했다. 일부 학생들은 단순히 출석만 확인하는 방식의 강의보다 학생 참여를 유도하는 수업에서 출퇴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대학 E 씨는 “교수님께서 무작위로 호명해 발표 하는 수업을 들은 적 있는데 학생들이 발표에 부담을 좀 느끼긴 했지만 확실히 수업 시간에 이동하거나 출퇴하는 학생들이 적어졌다”고 말했다. 앞서 설문에서도 ‘출퇴를 방지할 수 있는 수업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조별 과제나 참여형 활동을 통해 수업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앞으로는 출퇴 문화를 가볍게 소비하기보다 성숙한 대학 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들의 자발적인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할 시점이다.

강수현 기자 12soohyeon@hufs.ac.kr

후속보도

지속되는 국제학사 건물 택배 혼선, 앞으로의 과제는

지난 1068호에서는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와 글로벌캠퍼스의 택배 보관 운영 문제를 다룬 바 있다. 이후 당시에는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점들이 설캠 국제학사(이하 국학)에 등장했다. 국학 입구에 택배가 장시간 적재돼 미관을 저해하고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학생들의 불편이 이어진 것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 1월 국학 1층 리모델링 과정에서

입구 적재 금지 안내문이 부착되고 기존 택배들이 치워짐으로써 문제가 일단락됐으나 최근까지도 국학 사생 소유가 아닌 택배들이 무인택배실로 배송되며 새로운 혼선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학사 내 택배 문제 현황△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국제학사 내 택배 문제 현황

현재 국학 건물에는 △교수 기숙사△동아리방△학생 기숙사△학교 부처△학생회실△학회실 등 다양한 공간이 함께 자리 잡고 있다. 5층부터 11층까지는 교수 기숙사 및 학생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으며 1층부터 4층까지는 기숙사를 제외한 동아리방△학교 부처△학생회실△학회실 등이 존재한다. 국학 내 무인택배실의 경우 학생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카드키를 태그하여 출입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국학 건물은 여러 공간이 함께 사용되는 구조인 만큼 건물 내에 위치한 사생용 무인택배실에는 1~4층을 사용하고 있는 학생들의 택배 또한 간혹 적재되곤 한다. 이로 인해 사생이 아닌 일부 학생들은 카드키가 없어 관리실을 통해 문의하거나 국학 운영팀을 통해 택배를 수령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과거 국학 건물 입구에 택배가 적재 가능했던 시절에는 사생 택배를 제외한 일반 택배들을 국학 건물 입구에 놓아도 됐으나 이번 공간 재배치 이후 1~4층 용 택배를 따로 모아두는 공간이 없는 실정이다. 국학 건물 구조에 익숙한 택배기사는 해당 호수를 찾아 배송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택배기사는 특정 호수를 쉽게 찾지 못해 무인택배실에 택배를 두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외대학보와 인터뷰를 진행한 우리대학 재학생 A 씨는 “택배 도착 안내 문자에 첨부된 사진을 확인해 보니 무인택배실로 보이는 장소로 잘못 배송됐다”라며 “무인택배실은 사생만 출입할 수 있어 기숙사생 친구에게 부탁했지만 내부가 어질러져 있어 물건을 찾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또한 교수 기숙사로 가야 하는 택배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교수 기숙사는

학생 기숙사와 같은 층에 있지만 별도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 국학 배송에 익숙하지 않은 기사님의 경우 쉽게 혼돈이 발생하거나 호수만 보고 무인택배실에 놓는 경우가 존재한다.

외대학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국학 운영팀(이하 운영팀)은 택배 오배송 문제를 인지하고 개선해 왔다고 밝혔다. 운영팀은 “무인택배실 입구에 택배 기사님들께서 오배송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택배 배송 안내사항을 부착했으나 기사님들께서 업무가 바빠서 잘 못 보고 지나치시기 때문에 오배송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라며 “사생 외의 택배는 관리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오배송된 택배를 찾기 위해 운영팀을 방문하는 경우와 무인택배함 내부가 혼잡해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조교들이 오배송된 택배를 다시 국학 1~4층으로 재배송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나아가야 할 방향

배송된 택배가 실제 배송 장소로 다시 이동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앞서 인터뷰한 A 씨는 “4층으로 시킨 택배가 무인택배실로 들어갔다는 배송 완료 문자를 받았는데 며칠 뒤 실제 배송 장소로 와 있었다”라고 말했다. 현재 사생이 아닌 학생들은 무인택배실로 오배송된 택배를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오배송된 택배가 실제 배송 장소로 다시 이동되는 과정에서 택배 동선에 대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배송 택배 발생 시

문의 방법과 처리 절차를 안내하는 게시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학 무인택배실 오배송 택배는 운영팀 측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운영팀 측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택배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학생들의 정확한 정보 기재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일부 택배는 이름만 적혀 있거나 층수 표기가 누락돼 있어 배송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운영팀 측은 “받는 사람의 이름과 국학 층수를 정확히 기재해야 택배기사들도 혼선 없이 배송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학생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실상 사생이 아닌 학생들의 택배를 정리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오배송된 택배를 관리하는 것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라며 “사생 외 학생들의 택배가 무인택배실로 잘못 배송되는 사례의 경우 택배기사님이 급하게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배송 문제인 만큼 학생들이 택배사 측에 직접 문의하거나 오배송 신고를 접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오배송 택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성원 모두의 노력으로 혼선을 줄이고 원활한 택배 배송이 이뤄질 수 있길 희망한다.

강수현 기자 12soohyeon@hufs.ac.kr

‘외국어 대학’의 역설 ... 유학생 막는 우리대학 디지털 언어장벽

우리대학 유학생은 재학생 다섯 명 중 한 명일 정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하지만 이들이 매일 사용하는 △우리대학 공식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중합정보시스템(이하 중정시)△카카오톡 알림톡△HelloLMS 등의 핵심 디지털 플랫폼 대부분에서 외국어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대학보 설문조사 결과 우리대학 유학생 중 60%가

언어 장벽에 가로막혀 △성적△수강신청△강학금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뒤늦게 알게 되거나 놓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45개 외국어를 가르치는 ‘외국어 대학’의 디지털 환경이 정작 유학생에게는 닫혀 있다는 모순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서 △디지털 플랫폼 언어 지원 현황△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디지털 플랫폼 언어 지원 현황

현재 우리대학 유학생들이 매일 사용하는 디지털 시스템 중 대부분이 한국어로만 제공된다. 외대학보가 우리대학의 주요 디지털 시스템을 직접 점검해 본 결과 유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핵심 플랫폼 전반에서 영어 지원이 되지 않거나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대학에서는 △한국외대 앱△한국외대 ID △HelloLMS 앱과 더불어 주요 공지 서비스인 카카오톡 알림톡을 사용하고 있다. 먼저 우리대학 공식 모바일 앱인 한국외대 앱의 경우 앱 설정을 영어로 바꾸고 접속하면 각 카테고리 명만 영어로 제공되며 △공지사항△메시지△학식메뉴 등 접속 시 ‘This service is displayed in Korean only(이 서비스는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라는 안내창이 뜨고 한국어로 표시된다. 또한 학생증 디지털화 앱인 한국외대 ID는 다국어 기능 없이 한국어 인터페이스만을 지원한다. 우리대학 학사 운영의 핵심 플랫폼인 HelloLMS 앱도 마찬가지다. 특히 HelloLMS 앱에서 강의계획서와 강의 공지사항에 대한 자동 번역 기능조차 지원되지 않아 한국어로만 게시되고 있다. 더불어 학사 공지 사항도 외국어 지원을 하지 않아 유학생들이 수강 신청 안내나 성적 처리 일정 같은 행정 공지를 파악하는 데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우리대학 유학생 A 씨는 “LMS에 올라온 공지 내용은 간단한 내용이 아니면 따로 번역기를 사용하거나 인터넷에 검색해 봐야 이해할 수 있어서 불편하다”라며 “시행이나 성적 평가 방식 같은 중요한 것들은 한국인 친구한테 한 번 더 확인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장학금 공지△주요 진로 행사△특강 일정 등 다양한 공지를 전달하는 우리대학 카카오톡 알림톡도 한국어로만 발송되고 있어 많은 유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대학에서 운영하는 각종 온라인 사이트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대학 공식 홈페이지에는 언어 전환 버튼이 있지만 이를 누르면 ‘This provides an unofficial translation by the Google translate. For more information, mail to univ_info@hufs.ac.kr(이는 Google 번역을 통한 비공식 번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univ_info@hufs.ac.kr로 문의해 주세요)’라는 안내가 뜬다. 해당 안내에 적혀있는 메일 주소는 우리대학 정보전략팀의 메일로 정보전략팀에 문의해본 결과 실제로 해당 메일로 연락하는 학생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학교 차원의 검수를 거친 공식 번역이 아닌 구글에서 제공하는 자동 번역 기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대학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지사항의 한국어 원문과 영어 번역본을 비교했을 때 어색하거나 부적절한 표현으로 번역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례로 ‘재수강 과목 연결 일정 공고’라는 제목은 ‘Announcement of retake subject connection schedule’로 번역돼 있는데 이는 ‘과목 연결’을 ‘subject connection’으로 직역한 것이다. 이는 원문의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표현으로 ‘Announcement of Schedule for Linking Retaken Course Records’가 더 적절한 번역이다. 더욱이 홈페이지에 수시로 게시되는 팝업 공지사항과 배너는 자동 번역 대상조차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유학생은 팝업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실제로 우리대학 유학생 B 씨는 “홈페이지에 접속했을 때 뜨는 팝업은 텍스트만 따로 복사해서 검색하기도 못하고 직접 번역하기도 힘들어서 꼼꼼히 보지 않았다가 강의평가 기간을 놓쳐서 성적 열람에 지장이 생긴 적이 있다”라며 불편함을 토로했다. 도서관 홈페이지 역시 팝업 공지와 배너 홍보물이 한국어로만 운영되고 있어 대출 기한 연장이나 열람실 운영 변경과 같은 주요 정보들이 유학생들에게는 제때 전달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대학 교환학생 C 씨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려고 했는데 열람실 운영 시간이 바뀌어서 헷갈렸던 적이 있다”라며 “한국인 친구에게 말했더니 도서관 홈페이지 팝업에 공지가 돼 있었다고 해서 그 후로는 도서관 홈페이지 팝업도 따로 사진을 찍어 번역기를 사용해 번역하고 있다”라고 불편했던 경험을 전했다. C 씨는 “아무래도 한국인들은 외국어에서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못 쓰겠지만 외국인 입장에서 이런 일이 반복된다 보면 불편하고 서툰 기도가 하다”라고 전했다. 우리대학 대부분의 행정 처리를 담당하는 중정시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사이트 내 메뉴 이름까지는 영어 지원이 되지만 정작 중요한 세부 내용은 한국어로만 지원되고 있다.

단과대학 및 학과별 강의 수강에 대한 전반적인 로드맵을 제공하는 수강편람 또한 외국어 지원을 하지 않는다. 우리대학은 e-book 자료 홍보관에 매 학기 △신입생△재학생△편입생 대상 수강편람을 PDF 형식으로 게시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어 지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150페이지에 달하는 수강편람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실제로 우리대학 유학생 D 씨는 “수강편람에 어떤 강의를 언제 들어야 하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건 맞지만 한국어가 완벽하지 않은 외국인 입장에서 수강편람을 직접 다 읽어보고 내게 해당하는 강의 목록을 찾는 게 너무 힘들었다”라며 “결국 혼자서 수강편람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 다른 유학생들에게 물어봤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러한 언어 미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먼저 우리대학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다국어를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외대학보가 서울 소재 16개 대학*을 조사해 본 결과 이들 대학은 모두 한국어와 별개로 영어로 된 공식 홈페이지를 함께 운영 중이다. 영어 홈페이지에서도 △공지△입학 정보△학사 정보△동일하게 업데이트되며 팝업과 배너도 영문화했다. 더 나아가 △건국대학교△국립대학교△세종대학교△중앙대학교의 경우 중국어를 포함해 3개 국어로 분리된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성하고 △배너△주요 공지△팝업을 영문으로 동시 게시하는 운영 체계를 갖춰 볼 수 있다. 정식 영어 홈페이지를 단기간에 구축하기 어렵다면 우선 팝업 공지와 주요 배너만이라도 영문 배너를 의무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는 공식 홈페이지와 앱에서 영어를 지원해 유학생들의 불편함을 줄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에 재학 중인 유학생 E 씨는 외대학보와의 인터뷰에서 “학교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언어 때문에 불편했던 적은 딱히 없었다”라고 밝혔다. 학교 홈페이지 차원에서는 자동 번역 기능을 도입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학교 홈페이지에 한해선 자동 번역 기능을 도입해 일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우리대학 경영학부는 영어와 중국어 구글 자동 번역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어 주목해 볼 만하다.

더불어 우리대학에서 운영하는 앱에도 영어 병기를 도입해 볼 수 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대학원 과정의 공식 행정 언어를 영어로 지정하고 학사 관련 공지를 영어로 우선 발송하는 정책을 운영 중이다. 우리대학 또한 강의계획서나 수업 공지는 담당 교수의 재량에 의해 제외하더라도 △성적 처리△수강신청△휴복학 안내 등 대학 차원의 학사 행정 공지는 영어 병기를 제도적으로 의무화해 볼 수 있다. 카카오톡 알림톡 역시 본문 하단에 동일한 내용을 영어로 추가한다면 유학생의 정보 접근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이때 전문 번역 인력이 없더라도 인공지능 번역 도구를 활용해 초안을 작성하고 담당자가 간단히 검수하는 방식으로 운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나아가 단과대 차원에서의 노력도 필요하다. 과거 제39대 영어대학 비상대책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자치번역위원회를 결성해 주요 공지와 수강편람을 영어로 번역해 배부하는 사업을 시행했다. 해당 사업을 시행한 비대위원장 신영정 씨는 “단과대학 내에서 지원자를 받아 자치번역위원회를 꾸렸고 기존에 한국어로만 제공되던 수강편람을 영문으로 번역했다”라고 전했다.

재학생의 약 20%를 차지하는 유학생 비율은 우리대학 디지털 시스템의 다국어 지원 투자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규모다. 45개 외국어를 교육하는 대학이 정작 유학생에게 영어 공지 하나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현실은 단순한 행정 미비를 넘어 대학의 정체성과 직결된 문제다. 단기적인 해결책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차원의 변화를 바탕으로 장기적 결과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서울소재 16개 대학 : △건국대학교△경희대학교△고려대학교△국립대학교△동국대학교△서강대학교△서울대학교△서울시립대학교△성균관대학교△세종대학교△숙명여자대학교△연세대학교△이화여자대학교△중앙대학교△한양대학교△홍익대학교

장은솔 기자 12eunsol@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야간) 2026학년도 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6학년도 후기 입시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6.04.03(금) ~ 04.17(금)	2026.05.29(금) ~ 06.12(금)
고사장 발표	05.06(수) 15:00	06.24(수) 15:00
면접전형	05.09(토) 10:00 예정	06.27(토) 10:00 예정
입학자 발표	05.21(목) 14:00	07.02(목) 14:00
등록예치금 납부	05.26(목) ~ 05.29(금)	07.06(월) ~ 07.10(금)

■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증원 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대상 및 전공

-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 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커뮤니케이션학과
- 다. 외국인유학사 한국 문화·문학학과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6년 8월 졸업예정자
-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커뮤니케이션학과 : 지원자의 모국어가 외국어인 경우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교 및 대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차처 제출
-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무관,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제출서류(자원 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 가. 공통제출 서류
- 1) 입학원서 1부(원서작성사이트에서 작성하여 출력)
- 2) 연구계획서 1부(원서작성사이트 또는 KFL대학원 홈페이지 다른 가능)
- 3)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원본)

4. 재학 전학원 성적증명서 1부(원본)

- 원입생은 원 대학교 성적증명서도 제출
- 5) 학원초빙동시 1부(원본)
- 6) 가족관계증명서 및 호구부(외국인 학생만 해당, 공증 필요)
- 7) TOPiK 3급 이상 성적표(외국인 학생만 해당)
- 8) 재정정명서(외국인 학생만 해당·2인당 1부 이상)

나. 외국대학 학위취득자

- 외국대학 학위취득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증명서류 이포스튜디오 인증 또는 국내 해당국가 대사관의 공증서 제출 필요
- 다. 신학 제출서류
- 1) 자격증 : 초등/중등 교사 자격증, 한국어교원 자격증(가산점 부여)
- 2) TOPiK(한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6급 이상) 가산점

6.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7. 전형장소 :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 홈페이지 공지)

8. 특전

- 가. 성적 우수자 3학기 졸업 가능(별도의 조기졸업심사 진행)
- 나. 3가지 졸업 트랙 운영
- * 논문(24학점 이수), 연구보고서(28학점 이수), 추가학점(32학점 이수)
- 다. 장학금 : 성적우수/우수외국인/동문/근로장학금 등 장학 혜택
- 라. 졸업시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 가능(외환과), 한국어번역과정 이수증명서 수여(번역·커뮤니케이션학과)

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kfl.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10.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교차처

TEL. 02-2173-3982 FAX. 02-2173-3969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한국외대 KFL대학원 교차처(대학원 106-1호)



국제지역 전문가 양성의 요람 국제지역대학원 2026학년도 후기 모집

1. 국제지역대학원 모집

◎ 석사학위과정 / 박사학위과정 / 석·박사 통합학위과정 모집 전형 일정

구분	1차 모집	2차 모집
온라인 원서작성	원서작성: 2026. 3. 31(화) ~ 4. 9(목)	원서작성: 2026. 5. 19(화) ~ 5. 28(목)
면접 전형일	2026. 4. 25(토)	2026. 6. 13(토)
입학설명회	2026. 5. 15(금) 예정 (Webex를 통한 온라인 입학설명회) 변동 가능	

*온라인 접수사이트 : <http://www.uwayapply.com>
※온라인 입학설명회 세부 안내는 추후 국제지역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단,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특징

- 가. 다양한 장학금 제도
- 나. 유엔평화대학 이종학위 프로그램 운영(국제학과, 한국학과, 중남미학과, 유럽연합학과)
- 다. 3+1제도 시행(선발자에 한하여 재학 중 1학기는 해외에서 학점취득)
- 라. 폭넓은 다양한 지역학, 국제학 과목 개설
- 마. 졸업 후 많은 동문들이 국제기구, 공공기관 국제협력실, 대사관, 국제 연구기관 등에서 국제지역 전문가로 활약 중

◎ 문의처: 02)2173-2448, 2449, 2434 / Email: hufsgsias@hufs.ac.kr
- 국제지역대학원 홈페이지: <https://gsias.hufs.ac.kr>

2. KOTRA-HUFS 통상 협동 특별과정 모집

◎ 모집: 석사학위과정(4학기)

학 과 (전 공)	학 위
국제지역전략학과 KOTRA-HUFS 통상 협동 전공(특별과정)	국제지역석사학사, 경제학석사

◎ 모집일정

구분	1차 모집	2차 모집
온라인 원서작성	원서작성: 2026. 3. 31(화) ~ 4. 9(목)	원서작성: 2026. 5. 19(화) ~ 5. 28(목)
면접 전형일	2026. 4. 25(토)	2026. 6. 13(토)
입학설명회	2026. 5. 15(금) 예정 (Webex를 통한 온라인 입학설명회) 변동 가능	

* 온라인 접수사이트 : <http://www.uwayapply.com>

◎ 특징

- 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출신 교수진 초빙
- 나. KOTRA의 통상전략 및 지역통상 현안 분석을 기반으로 국제지역대학원의 고유가치인 지역학 집중
- 다. 통상환경 + 실무이론 + 지역별 심화 연구를 아우르는 실무 통상 전략기 양성을 목표로(리얼리즘 방향은 추후 변경 가능)
- 라. 졸업 시 학위기와 함께, 별도로 KOTRA 시장 영의의 KOTRA-HUFS 통상 협동 특별과정 수료증 수여
- 마. KOTRA 현지 무역관 연계 단기 현장학습 추진
- 바. GBC(글로벌 비즈니스 컨설팅센터, 민간 1급) 자격증 연계

◎ 문의처: 02)2173-2448, 2449, 2434

Email: hufsgsias@hufs.ac.kr

- 국제지역대학원 홈페이지: <https://gsias.hufs.ac.kr>





어서 와 해외는 처음이지

대서양의 끝 아일랜드에서 보낸 한 학기

삶의 크고 작은 선택 앞에서 늘 고민하던 내게 교환학생은 의심할 여지 없는 확신으로 다가왔다. 난 지난 1월 아일랜드(Ireland)에 도착해 지금까지 코크대학교(University College Cork, 이하 코크대)에서 한 학기 동안 교환학생으로 생활하고 있다. 코크(Cork)는 수도 더블린(Dublin)에 이어 아일랜드 제2의 도시라 불리지만 인구는 23만 명 남짓이며 그중 3만 명 이상이 대학생인 전형적인 대학 도시다.

학기 초 내게 있어 가장 큰 전환점은 학생회에서 주최한 '리프레셔즈 파티(Refresher's Party)'였다. 모두가 친구를 사귀고 싶어하는 열린 분위기에 덕분에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차를 빌려 아일랜드의 서쪽 끝 딩글(Dingle)로 떠나기도 했다. 오직 초원에서 아기 염소를 보기 위함이었다. 링 오브 케리(Ring of Kerry)의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대서양의 푸른 바다가 맞닿은 해안선을 달리는 기분은 거대한 해방감을 선사했다. 코크 인근의 미들턴(Midleton) 위스키 증류소를 방문해 아일랜드인의 자부심인 아이리시 위스키도 체험하고 타이타닉 호의 마지막 기항지인 코브(Cobh)를 찾아 역사 속 한 장면에 서 보기도 했다. 모허 절벽(Cliffs of Moher)을 마주했을 땐 대서양의 웅장함에 압도돼 한동안 발길을 떼지 못했다. 다른 곳에서 찾아볼

동아리에 참가했다. 스포츠클럽은 학교 체육관인 마다이크 아레나(Mardyke Arena)에서 대부분의 활동을 무료로 참여할 수 있었다.

아일랜드를 논하며 음악을 빼놓을 수 없다. 스티 크랜베리스(The Cranberries)△마이 블러디 발렌타인(My Bloody Valentine)△U2 등 세계적인 락밴드의 고향답게 거리 곳곳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펌 문화가 발달해 있어 매일 어디서나 라이브 음악을 들을 수도 있다. 특히 코크는

해둔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를 두려워했던 난 그런 일들이 그리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남은 시간 동안은 아직 가보지 못한 아일랜드 곳곳을 탐험할 계획이다. 아일랜드로 출국하기 전 내 목표는 뒤돌아보지 않고 아일랜드와 작별할 만큼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다. 지금의 난 훗날 이곳을 자주 그리워하게 될 것을 직감하고 있다. 아일랜드



수 없는 아일랜드만의 독특한 풍경이 매 순간 마음을 사로잡았다.

학업 외 시간에 학교의 훌륭한 인프라를 활용했다. 코크대에선 동아리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학교 사이트에서 클릭 한 번으로 간단히 동아리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일정표를 통해 활동 일정을 확인하고 자유롭게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평소 경험해 보지 못한 것에 도전하고 싶어 △등산△뜨개질 △모터스포츠△스쿼시△클라이밍 등 다양한

전설적인 기타리스트인 로리 갤러거(Rory Gallagher)가 성찬한 도시라 시립 도서관엔 그를 기리는 음악 도서관도 자리 잡고 있다. 여기서 기타를 빌려 연주하거나 음반을 감상할 수 있다. 처음 방문했을 때 사서 분께서 한국에서 왔다는 내게 우리나라 포크(Folk) 음악 서적을 직접 찾아 주셨고 아일랜드 전통 음악을 소개해 주시기도 했다.

지난 몇 달간의 생활은 내가 스스로 규정해 왔던 삶의 태도를 돌아보게 했다. 스스로 정

에서의 기억은 앞으로 마주할 수많은 삶의 파도 앞에서라도 날 지탱해줄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윤고은(일본 · 일문 24)



이탈리아

<명상록>

- 스스로를 바로 세우는 힘 -



'명상록'은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Marcus Aurelius)가 게르만 원정을 다니던 생애 후기에 자기 자신에게 남긴 기록들을 담은 책이다. 각각의 글은 하나의 이야기처럼 긴밀하게 이어져 있지는 않다. 오히려 자신의 내면 깊은 곳을 들여다보며 지금의 상황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최선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스스로에게 다짐한 내용들이 자유롭게 기록돼 있다.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을 천천히 읽다 보면 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힘이 있다. 특히 △살아가는 태도△인간의 본성△죽음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미래에 대한 고민은 늘 어렵다.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와 그 길을 끝까지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 진로를 정했다고 해서 모든 불안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 길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수록 확인보단 두려움이 더 크게 느껴질 때도 있다. 그런 시기에 접한 '명상록'은 단순한 철학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책으로 다가왔다.

특히 제4권 18번째 문장은 이러한 고민을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든다. 다른 사람들의 △말△행동△생각에 지나치게 신경 쓰기보다 자신의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느라 흔들리거나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단 것이다. 이 문장은 남의 시선이나 평가에 기대기보다 먼저 자신을 바로 세우려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결국 중요한 것은 주변의 반응이 아니라 스스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태도다.

제8권 60번째 문장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인상 깊다. 화살이 늘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것과 달리 인간의 정신은 앞으로 나아가는 듯하다가도 때로는 제 자리에서 맴도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 과정 역시 결국에는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일이라고 말한다. 이 문장은 고민하고 흔들리는 시간이 결코 멈춰 있는 시간만은 아니란 점을 떠올리게 한다. 질문하고 방황하는 과정 역시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찾아가는 방식일 수 있다.

이러한 고민은 개인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뒤처지면 안 된단 불안 속에서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려 하고 그 과정에서 방향을 꺾는다. 물론 자신만의 길을 정하고 묵묵히 나아가는 멋진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한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고민하고 흔들리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명상록'은 그런 순간에 스스로를 다시 붙잡게 만드는 책이다. 막연히 "핑계 대지 말고 하자"거나 "뜻한 일이 있으면 밀고 나가야지"라고 생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이 세운 계획과 삶의 방향을 마음속에 더 깊이 새기게 한다. 흔들리고 방황하는 시간조차 결국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일 수 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거나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지금의 고민과 흔들림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일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더라도 다시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태도다.

정일성 기자 12lseong@hufs.ac.kr

디지털융합인재를 양성하는 GMC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2026학년도 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특별·일반 전형)

1. 2026학년도 후기 입시일정

구분	특별 전형 일정	일반 전형	장소
원서접수	2026.4.13.(월) ~ 4.30.(목)	2026.6.1.(월) ~ 6.18.(목)	유웨이글로벌캠퍼스 원서접수
서류제출	2026.4.13.(월) ~ 4.30.(목)	2026.6.1.(월) ~ 6.18.(목)	글로벌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대학원 111호)
면접대상자 발표	2026.5.6.(수) 15:00	2026.6.24.(수) 15:00	개별 공지
면접전형	2026.5.9.(토) 10:00	2026.6.27.(토) 10:00	화상면접
합격자발표	2026.5.22.(금) 15:00	2026.7.10.(금) 15:00	홈페이지에서 확인
합격자등록	2026.5.26.(화) ~ 5.29.(금)	2026.7.13.(월) ~ 2026.7.17.(금)	유리온행 전국 지정 가상계좌 납부가능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충족 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미디어비즈니스 · 엔터테인먼트전공 - 오프라인 과정
나. 디지털미디어융합전공 - 온라인 과정

3. 지원자격
가. 국내 · 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6년 8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STEP 1 -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제출 및 기타 구비서류 교환처 제출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6. 전형장소: 화상면접(추후 공지)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gsgmc.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8.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학처
TEL. 02-2173-3282 FAX. 02-2173-3358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글로벌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2026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

◆ 전형 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6.4.13.(월) ~ 4.24.(금)	2026.6.1.(월) ~ 6.12.(금)
면접전형	2026.5.9.(토) 10:00	2026.6.27.(토) 10:00
합격자 발표	2026.5.22.(금) 16:00 예정	2026.7.10.(금) 16:00 예정
등록예치금 납부	2026.5.26.(화) ~ 5.29.(금)	2026.7.13.(월) ~ 7.17.(금)

◆ 모집 전공

모집 과정	지원 전공
교원자격증 취득 교육학 석사 (야간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교육 • 영어교육 • 컴퓨터교육 • 스페인어교육 • 일본어교육 • 중국어교육 • 역사교육 • 일반사회교육 • 유아교육 • 수학교육 • 상담심리(전문상담교사 2급)
모집 과정	지원 전공
교육학 석사 (야간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영어교육 • 독서논술교육 • 문화콘텐츠교육 • 지속가능발전교육

◆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 · 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6년 8월 졸업예정자
- 외국어, 독학사는 졸업지에 한해 지원 가능
나.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지원전공의 관련학과(전공)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전공학점 30점이상 이수자

◆ 우대사항

가. 현직교사 장학금 지급
나. 교원자격증 기 취득자는 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활동 면제

◆ 접수방법

STEP 1 -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유웨이글로벌캠퍼스 Uweapply.com)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제출 및 기타 구비서류 제출
* 우편(등기),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입학 문의 : 교육대학원 교학처 입학담당관
TEL. 02(2173)-2419 FAX. 02(2173)-3358
○ 주 소 :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건물 1층 111호실
○ 찾아오는 길 :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1번 출구) 걸어서 5분 거리
○ 홈페이지 : gse.hufs.ac.kr
○ 이메일 : hufsgse@hufs.ac.kr



시민의 한 표로 결정되는 서울시의 미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지난 2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에 외대학보가 속한 서울권 대학언론연합회는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의 정원오 후보자(이하 정 후보자)와 국민의 힘의 오세훈 후보자(이하 오 후보자)와의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현재 전반

적인 정치 흐름에 대한 시민 여론을 확인할 수 있기에 더욱더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각 분야별 공약 점검을 포함해 △정원오 후보자가 그리는 서울시의 미래 △오세훈 후보자가 그리는 서울시의 미래△서울시에 남겨진 과제에 대해 알아보자.

◆정원오 후보자가 그리는 서울시의 미래

정 후보자는 서면 인터뷰에서 청년들이 관심을 갖는 △교통△노동△문화△소통△주거△재난안전△취업 분야에 대한 질문에 답하며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다. 정 후보자는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각오를 밝히며 “시민이 주인인 세상이 아깝지 않은 서울을 만들겠다”라고 답했다. 특히 정 후보자는 청년 정책 공약으로 청년 주택 5만 호 공급과 창업 활성화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청년 일자리 해결 방안으로 창업 활성화를 내세운 이유에 대해 정 후보자는 “창업을 청년 일자리의 유일한 대안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라며 “핵심은 서울 전체의 경제활력을 되살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인재들이 서울에서 일하고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공약 내용에 대해 정 후보자는 “글로벌 G2 서울 구상을 바탕으로 기존 3도심 체계를 신촌·홍대와 청량리·왕십리까지 포함한 5도심 체계로 확장해 서울 동북권과 서북권에 각각 업무 축을 만들고 동시에 △구로·가산△양재△용산△홍릉을 4대 특구로 육성해 △구로·가산은 AI 실증과 제조혁신△양재는 AI△용산은 글로벌 업무·투자·AI 금융 거점△홍릉은 바이오로 키우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 후보자는 “청년 창업 지원은 그 큰 흐름을 보완하는 정책”이라며 “이를 위해 △관악△신촌△청량리에 3대 창업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창업도전캠퍼스에서 매년 1천 명의 도전자를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창업도전수당 월 1백만 원△첫출발지원금 최대 4천만 원△1천억 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도 조성하겠다”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정 후보자는 “창업 과정에서 쌓인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서울창업경험은행에 기록해 다음 창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공공 자산으로 만들겠다”라고 덧붙이며 청년 일자리 해결 방안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했다.

청년 주거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질문에 정 후보자는 청년 주택 5만 호 공급을 해결 방안으로 꼽았다. 정 후보자는 “성동구청장 시절 모범 사례를 만든 상생사를 서울 전역으로 확산해 2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며 “원룸 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대신 입주 청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낮춰 월세 부담을 줄이는 한편 SH공사의 본래 기능을 회복시켜 청년 공공임대주택 2만 3

천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월세 완화를 위한 지원책도 제시했다. 정 후보자는 “중동전쟁 여파로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청년들이 부담하는 월세도 더 크게 오르고 있다”라며 “현재 서울시는 2만 명에게 1년 동안 월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해 10만 명의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 후보자는 대표 공약인 ‘착착개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과 기대효과를 언급했다. 정 후보자는 “제가 제안하는 착착개발에는 정부·국회와 협력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고 정비사업 절차를 확실하게 간소화하겠다는 구체적 실현 방안이 포함돼 있다”라며 “현재 정비사업 기간을 줄이기 위해 기본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사업 시행 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한 번의 총회와 인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더 단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 후보자는 “현재 임대주택 매입비용이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정해져 조합 부담이 컸는데 이를 기본형 건축비의 80%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라며 사업성 개선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정비사업이 실제로 움직이려면 절차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사업성이 함께 개선돼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응답했다.

◆오세훈 후보자가 그리는 서울시의 미래

오 후보자 역시 청년들이 공통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교통△문화△복지△주거△취업 분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이번 서울시장 5선에 도전하는 오 후보자는 “저의 5선 도전은 자리를 지키기 위한 도전이 아니라 시작된 변화를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완성하기 위한 책임의 도전이다”라며 출마 각오를 전했다.

가장 먼저 청년이 가지는 원룸·오피스텔의 △관리비 △월세△전세사기 가능성에 대한 주거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 오 후보자는 “청년 주거 문제는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청년의 미래와 출발선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라며 “우선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을

위해 ‘서울형 새싹원룸’ 1만 실을 공급하고 대학 신입생에게 최대 3천만 원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공유주택 6천 호와 대학 기숙사 1만1천 실도 추가 공급해 청년들의 초기 주거비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에게는 시세의 10-30% 수준으로 거주 가능한 ‘디딤돌 청년주택’ 2천 호를 공급하고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연계해 자산 형성까지 지원하겠다”라며 “전세사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세사기 위험제로 서울’을 추진해 모든 전세 계약에 대해 위험 사전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코리빙하우스는 전월세보증금 100% 보장을 원칙으로 운영할 뿐만 아니라 대학가 임대료를 동결하는 ‘청년동행 임대인’ 제도도 확대해 중개수수료와 수리비를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취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오 후보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마다 설치된 청년취업사관학교를 ‘AI 중심 취업사관학교 20’으로 업그레이드해 단순 코딩 교육 수준이 아니라 실제 기업이 필요로 하는 AI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거점 캠퍼스를 AI·빅테크·지역 특화산업 중심으로 전문화하고 산학연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 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교육 과정 전체에 창업 실무와 멘토링을 결합해 AI 창업 생태계도 육성하겠다”라며 “청년들에게 AI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청년센터·대학 등에 공용 AI 환경을 구축하고 청년 50만 명에게 AI 이용 계정과 이용권을 지원해 단순히 AI를 소비하는 수준이 아니라 활용하고 창조하는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 후보자의 대표 공약인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보완점을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주택 정책 추진 방법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 오 후보자는 “우선 이주·착공 단계에 있는 주요 사업지를 ‘핵심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겠다”라며 “단순히 구역 지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착공까지 서울시가 책임지고 추진해 3년 내 8만 5천 호 신속 착공 체계를 만들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기존처럼 사업 단계마다 따로 심의를 받는 방식이 아니라 조합 설립과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동시에 처리하는 ‘패속통합’을 도입해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복잡한 법령 검토와 정비 계획 반려도 AI 기반 ‘신통AI기획’을 통해 속도를 높여 주겠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오 후보자는 “특히 저는 앞으로의 서울 주택 정책 핵심이 강남·서남권 주거 환경 개선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그동안 서울은 강남 중심으로 발전해 왔고 강남·서남권은 과도한 규제와 낮은 사업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비사업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에 규제의 틀 자체를 바꾸겠다”라고 접근하고 있다”라고 정책 추진에 대한 인식을 밝혔다.

◆서울시에 남겨진 과제

국민일보와 한국일보에 따르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주요 쟁점으로 꼽히는 것은 부동산과 청년 문제다. MBN 뉴스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8개월 연속 상승을 이어가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러한 집값 상승 현상은 시장 불안성을 높이고 청년층 주거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쉬웠음 청년 인구 역시 한국경제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71만 7천 명으로 지난 2003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통계를 일자리 미스매치로 노동 시장을 이탈한 청년이 재진입하지 못하고 비경제활동인구로 머무르는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음을 시사했다.

집값 상승과 청년 문제의 심각성이 통계를 통해 드러나는 가운데 차기 서울시장에 제시한 대안이 새로운 흐름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캠퍼스를 넘어 구청으로... 동대문구 3개 대학, 동대문구청장 후보자 간담회 공동 주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지난 2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에 발맞춰 지난 22일 동대문 아르크 카멜리아홀에서 △우리대학 서울캠퍼스 제60대 총학생회 '선명'(이하 설캠 총학)△경희대 제54대 총학생회 'MATE'(이하 경희대 총학)△서울시립대 제62대 총학생회 '새벽'(이하 시립대 총학)이 주최한 동대문구청장 후보자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3개 대학별 학생들 요구안 및 다양한 의제에 대한 동대문구청장 후보자들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청년 공약을 향한 대학생의 목소리

3개 대학은 공동 요구안으로 △경의중앙선 인근 대학생의 상습적 이동권 침해 개선을 위한 BRT(Bus Rapid Transit)* 시스템 도입△동대문구청 상생학사 모델 구축△동대문구청 생활권 보행 및 아간 안전 개선 사업△동대문구 청년 학업 및 취업 정보제공 원스톱 플랫폼 개설△동대문구 3개 대학 연합 학술 포럼(Forum) 및 토론 교류 체계 구축△동대문구 3개 대학 총학생회와 구청장 간 청년정책 협의체 개설△청년 주거 안심 지원 사업을 제시했다.

이어진 대학별 요구안에서 설캠 총학은 △동대문구 지역 연계 및 관학 연계 장학금 확충△대학과 지역사회 간 상생 협력 체계 구축 사업△우리대학과 동대문구청의 상생학사 건립△외대앞역 부근 지하차도 및 차로 확충 △외대앞역 승강기 추가 설치△청년층 자격증 및 어학 교육 및 응시료 지원 강화를 제안했다. 경희대 총학은 △동대문01과 02 버스 노선 시간표 명시화 및 운영 개선을 통한 대학가 이동 환경 개선△자기설계형접제 연계 공공협력형 사회 혁신 프로젝트 추진△회기 상권 야장 및 로컬 브랜드 상권 활성화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시립대 총학은 △동대문구 대학 간 보행녹지축 및 그린 코리도어(Green Corridor)** 시범 조성 사업△시립대와 동대문구의 U.D.O(Urban Design Ownership) 사업△청량리 및 전농동 대학생 생활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을 제안했다.

◆최동민 후보자가 바라는 동대문구의 미래

1부 간담회는 △최 후보자의 청년 대상 공약에 대한 질의응답△3개 대학의 공동 요구안에 대한 답변△대학별 요구안에 대한 답변순으로 이뤄졌다. 최 후보자는 청년 대상 공약 중 주거 문제에 대해 청량리 주거 및 정비 예정지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재개발할 계획이며 청년을 위한 안심 주거 스테이션을 설립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상생 학사 설립△월세 사업 지원△청년 보증금 이자 지원 등 청년이 동대문구 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도울 방안을 제시했다. 그 외에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동대문구 내 취업을 돕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동대문구 행정과 연계하는 사업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진 3개 대학 공동 요구안에 대해서 먼저 동대문구

형 상생학사 모델 구축에 대해 “제기동 동의보감 등 업무용 오피스텔을 확보했다”라며 “주거형을 위해 화장실과 세면대 등을 보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특히 LH가 원룸을 개선하는 등 건물을 보완하고 보증금을 상당 수준으로 제공하며 임대료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모델을 목표로 한다고 답변했으며 LH 및 SH와 협약해 보증금의 이자를 지원하는 시스템 역시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 주거 안심 지원 사업에 대해서 현재 전 세시기 TF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앞서 언급한 청년 정보 플랫폼에 관련된 기본적인 주의 사항을 게시하고 학교와 협력하여 예방 교육을 시행할 계획을 전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청년 주거 안심 스테이션’을 설립하고 청년 주거 안심 센터의 전문 인력을 상담원으로 파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최 후보자는 우리대학 요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먼저 지역 연계 장학금 확충에 대해서 지역과 연계하는 장학금 지원 사업을 응시료 지원과 묶어서 지원할 것을 밝혔다. 또한 외대앞역 교통 환경에 관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하차도 추가 건설의 현황을 공유해 이동권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 외대앞역 승강기 문제도 함께 검토하고 있음을 전했다. 경희대가 요구한 동대문 마을버스와 관련해서 공공형 무상 순환 버스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밝혔다. 이를 통해 외대앞역이나 회기역 등 지역 내 공공시설과 연계하여 마을버스 제도와 상충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야간에 안심 귀가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회기 상권 등 동대문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센터와 협의해서 외국인 대학생을 통해 외국 문화를 소개하는 부스를 고려 중이다”라고 전하며 과거 도시 재생 모델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해서 구성할 계획을 전했다. 시립대의 도시 환경 개선 요구안에 대해서 조경학과나 건축학과 등과 함께 연계해 지역 내 학생들이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전하며 “합한 거리와 상권을 만드는 구축 작업을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청량리와 전농동 대학생 생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부 인적 자원을 연계하여 교수진뿐만 아니라 학부생이 함께할 수 있는 공공 디자인 참여 사업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 후보자는 “청년과의 소통 과정에서 실질적인 노력과 대학생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궁극적으로는 청년정책위원회를 실질적

행사는 △동대문구청장 후보자 공약 소개△3개 대학 공동 요구안 전달 및 질의응답△대학별 정책 요구안에 대한 후보자 답변순으로 진행됐다. 간담회 1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최동민 후보자(이하 최 후보자)가 2부에서는 국민의힘의 이필형 후보자(이하 이 후보자)가 참여했다. 본 기사에서 △청년 공약을 향한 대학생의 목소리△최동민 후보자가 바라는 동대문구의 미래△이필형 후보자가 바라는 동대문구의 미래에 대해 알아보자.

으로 운영하겠다”라며 “청년이 직접 참여할 기회를 부여해 청년이 주체가 돼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행정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전하며 마무리했다.

◆이필형 후보자가 바라는 동대문구의 미래

이어진 2부 간담회는 △이 후보자의 청년 대상 공약에 대한 질의응답△3개 대학의 공동 요구안에 대한 답변△대학별 요구안에 대한 답변순으로 동일하게 이뤄졌다. 이 후보자는 청년 대상 공약에서의 핵심 요소로 일자리와 주거를 강조하며 “대학생 청년 커뮤니티”를 만들 것임을 언급했다. 또한 이 후보는 AI 공존 도시에 관해 설명하며 통합 돌봄 및 청년 일자리에 적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AI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대신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며 정확한 일자리 정보를 AI 플랫폼을 통해 전달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그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전국에 있는 일자리를 네트워크화하고 동대문구 청년센터와 함께 데이터베이스화하는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빅데이터 구조화로 ‘일자리 징검다리’를 마련하고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 연결하는 구상을 전했다. 그는 “현장에 가서 일자리를 체험할 수 있고 자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3개 대학 공동 요구안에 대해서 경의중앙선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대안으로 서울시와 협의해 노선부스를 조정하는 협의를 진행할 것을 전했다. 또한 기숙사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절대적 권한을 가진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조해 재건축 및 재개발 관련 문제를 기부채납*** 제도로 해결할 장기적인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 후보자는 우리대학 요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먼저 지역 연계 장학금 확충에 대해서 동대문구 내 기업의 수는 적으나 홍릉 바이오 특구를 중심으로 관련 기업이 들어서고 바이오밸리(Bio Valley)를 유치한다면 기부금 및 장학금 선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외대앞역 교통 환경에 관해 “1호선 지하차도는 약 20년의 장기적 계획이다”라고 설명하며 단기적으로는 1호선 소음 방지를 위해 덮개를 설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공원이나 운동시설 설치 문제에 대해 코레일과 구체적으로 상의할 것을 약속했다. 경희

대가 요구한 동대문 마을버스와 관련해서 시간 조정 부분에 있어 실무적인 문제가 따르므로 △관련 종사자△서울시△총학과의 협의를 통해 학생들이 동대문구 내 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약속했다. 이 후보자는 회기 상권 등 동대문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의 골목 상권 활성화 사업을 활용할 것 또한 언급하며 현재 장안동과 제기동에서 시범 사업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학생들 역시 고향 사랑 운동을 통해 지역 상권 이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시립대의 도시 환경 개선 요구안에 대해서 3년 전 시행했던 ‘5분 거리 정원’으로 녹지축을 조성한 경험을 언급하며 녹지축 시범 사업으로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로수 밀 정원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동별로 50개씩 대략 750개를 운영하고 있다. 이어서 그는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포켓 공원’ 조성을 추진할 것이며 대학 보행로에도 이를 단계적으로 만들 계획임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자는 자신이 그간 청년과 소통해 왔던 노력을 피력하며 “앞으로 많은 자리를 마련한다면 더욱 소통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더 좋은 제안이 제시될 수 있는 상상력이 나올 수 있도록 무대를 확보하면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하며 마무리했다.

경희대 총학생회장은 이날 간담회를 종료하며 “청년들의 불평이 실제 정책으로 해결되는 그림을 그려보고자 했다”라며 “해당 간담회가 그러한 시도의 첫 발자국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3개 대학 총학이 동대문구에서 나아가 서울시 그리고 대한민국의 다양한 고민과 생각을 던지겠다”라며 “앞으로 해나갈 도전에 관심 많이 가지고 함께 목소리를 내어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BRT(Bus Rapid Transit): △입체교차로△전용 주행로 △전용 차량△정류소 등을 갖추어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교통체계
**그린 코리도어(Green Corridor): 단절된 자연을 잇는 생태 통로이자 무탄소 선박만 운항하도록 지정된 친환경 해운 항로
***기부채납: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증여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재산을 받아들이는 것

반복되는 문자마 범죄, 사회는 무엇을 놓치고 있나

지난 5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심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이 일면식 없는 남성의 공격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며 사회적 충격을 일으켰다. 경찰은 가해자 장윤기(이하 장 씨)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장 씨는 별다른 목적 없이 충동적으로 자처한 일이라고 진술했으나 △범행 며칠 전부터 흥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점 △범행 전 휴대폰 전원을 꺼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한 점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무인 세탁소에서 피 묻은 옷을 세탁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을 고려

했을 때 불특정 대상에 대한 계획범죄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게 됐다. 이처럼 특별한 원한 관계없이 불특정 대상을 향한 이른바 문자마 범죄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안감 또한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반복되는 문자마 범죄의 배경에 사회의 누적된 좌절감과 온라인 공간에서 확산되는 혐오 문화 등이 자리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본 기사를 통해 △문자마 범죄의 현주소 △문자마 범죄의 원인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문자마 범죄의 현주소

이번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과 같이 구체적인 범행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문자마 범죄'는 지난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더욱 크게 주목받기 시작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 강남역 인근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30대 남성 김 씨가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에게 흥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으로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는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2023년 또다시 서울 신림역과 경기 성남시 서현역에서 잇따라 흥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며 시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됐다. 당시 가해자들은 변화가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해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이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에서 4천명 규모의 형사기동대와 기동순찰대를 신설하고 △가시범 없는 종신형 도입 △중증 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 검토 △살인 예고 및 공공장소 흥기 소지 처벌 규정 신설 △'이상동기 범죄' 용어 공식화 등의 정책을 발표했으나 이후 이어지는 관련 범죄들을 막진 못했다.

CBS노컷뉴스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문자마 범죄)는 총 12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발생 건수는 △2023년 46건 △2024년 42건 △2025년 39건이며 이상동기 범죄 10건 중 3건 꼴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사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문자마 범죄'로 분류된 판결문 117건 중 총 77건(65.8%)이 △노인 △미성년자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인 것으로 밝혀졌다.

◆문자마 범죄의 원인

문자마 범죄 가해자의 특징 중 하나는 대다수가 경제적 소외 계층이었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의 통계자료

에 따르면 문자마 범죄의 가해자 중 85.4%가 월 평균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소득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 또한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불만 증가가 문자마 범죄의 주요 배경 중 하나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상균 백석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문자마 범죄는 좌절감과 실망감 등이 쌓이다 어떤 계기로 폭발한 것"이라며 "청년들의 취업이나 경제적 양극화 같은 사회 구조적 원인이 분노를 불렀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사회를 향한 적대감을 완충해 줄 최소한의 지지 기반인 가족이나 직장마저 없는 사회적 고립 상태는 이러한 문제를 더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전국 14개 교도소에 수감 중인 문자마 범죄자 60명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66.7%(40명)가 무직 상태였으며 상당수가 가족 및 사회적 관계로부터 단절된 상태에 놓여 있었다. 박지선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교수는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무차별 범죄의 원인을 단순한 정신질환으로 환원해선 안 된다"라고 지적하며 "가정·학교·직장 등에서의 사회적 단절과 소외의 경험이 피해의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언급했다.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개인은 자신이 처한 불행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사회에 대한 막연한 피해의식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소외와 단절이 누적된 현실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현실 세계에서 철저히 고립된 이들이 타인과 연결되는 주요 통로가 온라인 공간이라는 점도 문자마 범죄 발생의 원인이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립 상태에 놓인 이들의 상당수가 하루 평균 4~5시간 이상을 스마트폰과 SNS에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에서의 대면 소통이 단절된 상황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유일한 해방구처럼 기능하며 이는 취약한 정서를 더욱 파고들게 된다. 특히 대안적 정보를 접할 기회가 부족한 상태에서 유튜브나 SNS 알고리즘이

제공하는 편향된 콘텐츠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현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이른바 '필터 버블(Filter Bubble)' 현상에 더욱 쉽게 빠지게 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온라인 혐오 표현 실태조사에서 온라인 공간이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과 적대감을 빠르게 확산시키는 통로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복적으로 소비되는 혐오 담론은 개인의 좌절과 분노를 특정 대상에 대한 적대감으로 전환시키며 특히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격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고립된 개인이 이러한 환경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자신의 불행에 대한 원인을 특정 성별이나 집단의 탓으로 돌리는 왜곡된 인식이 빠질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고립된 개인들이 이러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자신의 불행을 △사회적 약자 △특정 지역 △특정 성별로 돌리는 희생양 찾기에 몰두하게 된다.

◆나아가야 할 방향

온라인상에서 증폭된 혐오와 현실의 고립이 맞물려 범죄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단순한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하기보다는 사회적 예방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선 경제적 소외 계층의 박탈감을 줄여줄 실질적인 안전망이 필요하다. 독일의 사회보험 제도는 국민이 △노령 △산업재해 △실업 △질병 같은 위험 상황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체계적 복지 제도이다. 근로자와 기업이 보험료를 함께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대표적으로 △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 △실업보험 △요양보험이 있다. 특히 이 제도의 경우 대부분의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사실상 안정적인 사회 안전망으로 작동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일자리를 늘리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실패 하더라도 사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을 제공해주는 정책을 고려해 볼지하다.

또한 붕괴된 개인의 심리를 복구하기 위해 영국의

'사회적 처방(Social Prescribing)' 제도를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영국은 세계 최초로 외로움 문제를 전담하는 부처를 신설해 고립된 개인을 지역 사회와 능동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외로움을 느끼는 환자에게 약물 대신 △스포츠 △동호회 △예술 활동 △자원 봉사 같은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전문 상담사인 '링크 워커(Link Worker)'가 이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복지 사각지대의 고립 청년이나 장기 실직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내 이들이 다시 공동체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건 △복지 △치안이 결합된 통합 관리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마지막으로 소외된 이들의 분노의 기폭제가 되는 온라인 공간의 정화를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일례로 유럽연합(EU)은 '디지털서비스법'을 통해 플랫폼과 사업자에게 불법 유해 콘텐츠 대응 의무와 투명성 확립 의무를 부과한다. 이와 더불어 올바른 디지털 시민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체계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시급하다. 우리교육연구국의 연구팀은 이론과 지식 전달에 치우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가짜뉴스 분석과 팩트체크 실습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일회성 교육에 그치지 않고 기존 교과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합해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적 분노는 결국 우리 사회의 소외와 단절이 깊어 더진 결과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 고립된 이들을 보호하고 온라인상의 왜곡된 혐오 문화를 바로잡는 전방위적인 노력이 선행될 때 비로소 문자마 범죄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동기 범죄: 뚜렷한 개인적 목적이나 명확한 범행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의 타인을 향해 무차별적인 폭력이나 상해를 가하는 범죄. 기존엔 '문자마 범죄'로 불렸으나 범죄의 원인과 예방책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이다.

이서영 기자 12seoyoung@hufs.ac.kr

www.사소한중토막.com

정치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난항,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 가능성 제기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단독 처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원내 지도부 회동을 통해 다음달 5일 본회의를 열어 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기로 합의했지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 뒤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과거 오랜 전통대로 1당과 2당이 서로 나눠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며 "법사위원장을 하반기에도 자기들이 놓치기 싫다는 본심이 나온 것 아닐까 추측한다"라고 밝혔다. 반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과거 "각 상임위원회의 법안 내용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고 때론 아주 긴급한 사항인데도 안 해 버린다"라며 "이런 식이면 다 가져와서 성과로 증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회 스타벅스 코리아 5·18 폼페 논란... 불매운동 확산 조짐

스타벅스 코리아가 마케팅 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폄하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며 불매운동 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스타벅스는 지난 18일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하며 '컬러풀 탱크 텀블러 세트'와 '탱크 듀오 세트'를 선보였다. 스타벅스 어플리케이션에 게시된 홍보물에는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와 함께 5월 18일을 두고 '탱크데이'란 표현이 사용됐다. 이후 온라인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스타벅스가 5·18 민주화운동을 폄하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같은 날 SNS를 통해 스타벅스 이벤트를 겨냥

해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 인권, 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이런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지난 19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는 부적절한 마케팅"이라며 "이번 사안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한신해 오신 모든 분의 고통과 희생을 가볍게 여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하지만 이미 소비자들 사이에선 스키존 스타벅스 제품 폐기 인증스기프티콘 환불△화면 탈퇴 게시물 등이 이어지며 불매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경제 2000조 육박한 가계부채... 금융 리스크 우려 확대

한국 가계부채 규모가 2000조 원에 육박하며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19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이번 해 3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93조 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보다 14조 원 증가한 규모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감소했지만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와 은행권 대출 총량 관리로 인해 예금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자금이 필요한 차주들이 제2금융권으로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소비 위축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제 트럼프 미 대통령, 인터뷰에서 "대만 독립 원치 않아" 발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하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15일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만 독립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발언해 파장이 일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중국은 매우 강력한 대국이고 대만은 매우 작은 섬"이라며 "대만은 중국 본토로부터 약 95km 떨어져 있지만 미국은 약 1만5천km 떨어져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대만 문제와 관련해 현상 유지를 선호하며 전쟁을 원치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누군가가 '미국이 우리를 밀어주니 독립

하자' 라고 말하는 상황은 원치 않는다"라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지난 14일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레이건 행정부 시절인 지난 1982년부터 지켜온 "대만 무기 판매를 중국과 사전 협의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외교 원칙을 위배하고 무기 판매 문제를 중국과 논의했다는 사실과 맞물려 미국의 대만 안보 공약의 후퇴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 '성과급 제도화' 충돌

지난해 12월부터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교섭에 돌입했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로 장기간 난항을 겪어왔다. 이후 지난달 23일 삼성전자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성과급 상한제 폐지를 요구하며 4만 명 규모의 집회를 열고 총파업을 예고했다. 지난 13일 1차 사후조정제에 이어 18일 2차 사후조정

까지 합의가 최종 결렬되며 총파업 가능성이 더욱 커졌으나 20일 노동부 장관의 중재로 노사 임금협상이 재개돼 양측이 극적으로 합의하며 총파업 위기를 넘겼다. 이와 관련해 이번 삼성전자 노사 갈등의 스베경스쟁점영향에 대해 박노근 우리대학 경영대학 교수와 함께 알아보자.

박노근 우리대학 경영대학 교수

Q1.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이어왔으나 총파업 위기까지 갔었습니다. 이번 갈등이 발생한 핵심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번 갈등의 핵심 배경으로는 불투명한 경영 구조와 그로 인한 노사 간 불신 형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노사가 임금 및 단체 협약 교섭을 이어오는 과정에서 회사의 경영 현황△이익 구조△재무 상황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상호 신뢰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러한 불신이 누적되며 충분한 조정될 수 있었던 문제도 극단적인 대립 국면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Q2. 삼성전자 노조 측은 '성과급 상한제' 폐지를 사측은 '재무 및 경영 부담'을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이처럼 성과급 보상 제도를 둘러싼 양측 입장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습니까?

핵심 쟁점은 기업 이익을 어떤 기준으로 어느 범위까지 노동자에게 배분할 것인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조 측은 현재와 같은 성과급 상한제가 기업의 이익 규모와 관계없이 지급 한도를 제한하는 구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높은 수익이 발생한 상황에서 성과에 비례한 보상에 상한을 두는 것은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느낀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성과급 지급 기준을 제도화해 보다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성과 배분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사측은 반도체 산업 호황이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과 향후 실적 악화 위험을 고려할 때 과도한 성과급 지급이 회사에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성과급을 일회성 보너스가 아닌 이익 배분 제도로 공식화할 경우 경기 변동에 따라 재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Q3. 과거 우리나라 대기업 노사 갈등과 비교했을 때 이번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주목받은 차별적 요인은 무엇입니까?

이번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임금 협상을 넘어 성과급 체계와 이익 배분 구조의 제도화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도 해외와 국내 일부 기업에서는 이익공유제(Profit Sharing)*가 도입돼 있었지만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운영해 온 성과급 방식은 연말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너스 성격이 강했고 회사 측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방식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반도체 산업이 이른바 슈퍼 사이클(Super Cycle)* 국면에 들어서며 삼성전자 실적이 크게 개선됐고 성과급 규모 역시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졌습니다. 기업 이익이 크게 늘어나자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경쟁사 수준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나타났습니다. 반면 사측은 과도한 성과급 지급이 기업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결국 이번 갈등은 기업 이익을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구조적 논쟁으로 확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사례 역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노사는 기존 성과급 상한선을 폐지하고 연간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배분하는 방식에 합의했습니다. 같은 반도체 업종 내 경쟁 기업이 이러한 방식을 도입하자 이후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경쟁사 수준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됐고 이는 노조 가입 확대와 성과급 제도화 요구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국내 경제와 반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 역시 이번 갈등을 부각시킨 요인입니다. 단순한 기업 내부 문제가 아니라 △국내 산업△수출△주식시장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여러 요인이 맞물리며 이번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기존 대기업 노사 갈등과 달리 성과급 제도화와 이익 배분 구조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으로 확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Q4. 정부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갈등 조정을 위해 중재에 나섰다 긴급조정권 행사까지 거론했습니다. 정부가 노사 갈등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정부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갈등 조정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양측 의견을 조율하고 타협점을 찾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 절차 역시 강제적 개입이라기보다는 노사 간 대화를 지속시키고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중재 과정의 의미가 큼니다.

그러나 긴급조정권의 경우 △국가 경제△국가 안보△방위 산업 등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때만 사용되는 강제적 제도입니다. 정부가 노조 갈등에 과

도하게 개입할 경우 노사 자율 교섭 원칙이 약화되고 국가 개입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강제 조정보다는 노사 간 의견 차이를 조율하고 협상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국가가 직접적 통제에 나서기보다는 노사가 스스로 합의 가능한 구조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5. 최근 반도체 및 IT 업계를 중심으로 경영 성과급과 보상 체계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이번 사례가 향후 국내 타 기업의 노사 관계와 노동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이번 사례는 향후 국내 타 기업에서 성과급 산정 기준의 투명성과 성과 배분 구조의 제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및 IT 업계와 같은 산업에서는 노동자들이 성과에 비례한 명확한 보상 기준을 요구할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기업에서는 성과급 산정 방식이 내부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고 노동자로서는 산정 과정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다는 불만도 존재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성과를 계기로 앞으로는 성과급 산정 기준과 이익 배분 구조를 노사가 함께 논의하고 공식화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번 사례를 계기로 이익공유제와 같은 성과와 연동하여 보상하는 제도에 대한 논의 더욱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산업별 상황에 맞는 제도화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Q6. 향후 유사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과 노조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상 체계와 교섭 구조의 개선 방향은 무엇으로 보십니까?

기업의 투명한 경영과 명확한 성과 배분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노사 갈등은 단순히 보상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보상이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지에 대한 신뢰 문제와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경영 성과△성과급 산정 기준△이익 배분 방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사가 사전에 합의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익공유제와 같은 보상 체계를 제도화하는

방향도 하나의 개선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익공유제를 활용해 실적에 비례해 성과급을 지급하여 실적이 좋을 때는 더 많이 지급하고 실적이 악화될 경우에는 그에 맞춰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회사가 임의로 성과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운영된다는 점에서 노사 간 신뢰와 보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노동자 입장에서 기업 실적에 비례해 성과급을 받는 구조가 마련되면 조직 성과가 자신의 소득과 연결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가 실제 주주는 아니더라도 기업 성과의 일부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심리적 소유 의식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 방식은 조직 몰입도와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적자원관리(HRM)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영업이익 발생 시 이를 △성과급 지급 △연구·개발(R&D) 투자△주주 배당 등에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을 명확히 마련한다면 반복적인 갈등과 교섭 부담 역시 상당 부분 줄어 들 수 있습니다. 결국 상생의 핵심은 노사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분배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를 투명하게 운영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Q7.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의 노사 갈등 사태가 우리 사회에 갖는 학술적 의미나 시사점은 무엇입니까?

이번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성과급과 이익 배분 구조가 기업 구성원의 만족도와 조직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익공유제를 운영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비교해 △노사 갈등△조직 성과△직무 만족도 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안은 △기업△노동자△주주 간 이해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도 확장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례는 특정 기업의 노사 갈등을 넘어 △기업 거버넌스△노사 관계의 지속 가능성△성과 배분 구조 등을 함께 검토할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익공유제(Profit Sharing):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를 주주와 직원이 공유하는 제도

*슈퍼사이클(Super Cycle): 원자재 등 특정 자산의 가격이 20년 이상 장기기간에 걸쳐 상승세를 지속하는 거시적인 추세

정일성 기자 12ilseong@hufs.ac.kr

“국내 최고의 English Language Teaching Program”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야간) 2026학년도 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6학년도 전기 입시일정

구분	특별전형(First Round)	일반전형(Second Round)
원서접수	2026.04.13(월) ~ 04.30(목)	2026.06.01(월) ~ 06.18(목)
고사장 발표	2026.05.06(수) 15:00	2026.06.24(수) 15:00
면접전형	2026.05.09(토) 10:00 예정	2026.06.27(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2026.05.22(금) 15:00	2026.07.10(금) 15:00
등록예치금 납부	2026.05.26(화) ~ 05.29(금)	2026.07.13(월) ~ 07.17(금)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한 중원 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나. Department of ELT Materials & Technology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6년 8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차처 제출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6. 전형장소: 서울캠퍼스

(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공지)

7. 기타사항

가. 신입생 입학성적 우수장학금(학과별 약간별)

나. 재학생 성적우수장학금(학과별 약간별)

- 가. 현직 교사 장학금(매학기 지급)
- 라. 학점 인정 혜택 (한국외대TESOL전문교육원 수료자, TESOL관련 석사학위수료자, TESOL자격증 취득자)
- 마. TESOL연구과정(자격증 과정)수료자 우대
- 바. Certificate Program(Columbia Univ.), Exchange Program(Univ. of Hawaii at Manoa)
- 사. Internship 프로그램(California State Universit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Oswego)
- 아. 추가학점 이수특례 (논문·출판연구보고서대체, 2021년 신입생부터 적용)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tesolgs.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9.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 교과과

TEL. 02-2173-3521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107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공공리더십대학원(야간) 2026학년도 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6학년도 후기 입시일정

구분	특별전형(First Round)	일반전형(Second Round)
원서접수	2026. 4. 6(월) ~ 4. 24(금)	2026. 6. 1(월) ~ 6. 17(수)
고사장 발표	2026. 5. 6(수) 15:00	2026. 6. 24(수) 15:00
면접전형	2026. 5. 9(토) 10:00 예정	2026. 6. 27(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2026. 5. 22(금) 15:00	2026. 7. 10(금) 15:00
등록예치금 납부	2026. 5. 26(화) ~ 5.29(금)	2026. 7. 13(월) ~ 7. 17(금)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의회행정학과(공공정책, 의회행정)
나. 외교안보학과(외교안보, 북한, 국가안보)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6년 8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외교안보학과 국가안보전공 지원자격
군사 안보 전문 분야(예: 군, 정보기관, 국가 안보 분야 등에서 최소 1년 이상의 현장 경험을 보유한 자

4. 접수방법

- STEP 1 - 인터넷(Uwayapply)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차처 제출

5.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6. 전형장소: 서울캠퍼스(면접 고사장 및 시간은 추후 공지)

7. 기타사항

가. 장학금(* 장학금은 입학 후 장학위원회를 통해 결정됨)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금/성적우수 장학금/공로 장학금/학비지원

장학금/원우회 임원 장학금

* 외교안보학과 국가안보전공: 입학성 전액 정규학기 등록금의 50%를 장학금으로 지급

나. 주말수업(토요일) 개설 / 평일 수업 18시 시작(본 대학원 내 학과 간 교차수강 가능)

다. 온라인 병행수업 진행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p.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무2팀(글로벌공공리더십대학원)

TEL. 02-2173-2428 FAX. 02-2173-3358

(우)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글로 세상을 이해하기

재수 시절 나는 홀로 공부하며 긴 시간을 버텨야 했고 번아웃에 가까운 순간도 겪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결국 우리대학에 입학했다. 수능 국어를 공부하면서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보다 글을 읽고 이해하며 생각하는 과정 자체에 큰 흥미를 느꼈고 언젠가는 많은 글을 읽으며 사색하고 성찰하며 내 생각을 글로 제대로 표현해보고 싶단 마음이 생겼다.

하지만 대학에 들어온 뒤엔 막상 글을 쓰는 일이 쉽지 않았다. 논술형 답안이나 자기소개서를 쓸 때마다 글을 잘 쓰고 싶었지만 정작 내 생각을 글로 풀어내는 일은 쉽지 않았다. 시사 상식도 부족했고 사회 문제를 깊게 바라보는 힘 역시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직접 글을 써보고 싶단 마음이 커졌고 그 과정에서 외대학보에 지원하게 됐다.

학교 활동을 하면서 세 번의 기획 기사를 맡았고 모두 커버 기사로 실렸다. 정 기자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기사들이 커버로 실린 점에서 큰 뿌듯함을 느꼈다. 처음 작성했던 기사는 외대학보 지원 당시 제출했던 잔디운동장 관련 기획 기사였다.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며 내가 쓴 글이 실제로 누군가에게 읽히고 있던 사실이 신기하게 느껴졌다.

가장 기대했던 취재는 총장 인터뷰였다. 총장님께서 같은 고향 출신이자 고등학교 동문이라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컸다. 당일엔 취재를 위해 이른 아침 글로벌캠퍼스로 향했다. 긴장도 많이 했지만 평소엔 멀게만 느껴졌던 대학 운영의 방향과 비전을 직접 듣고 질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뜻깊은 경험이었다.

이번 호에선 처음으로 학술 기사 인터뷰를 맡았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관련 기사를 준비했는데 협상 상황이 지연되면서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야 했다. 처음 요청드렸던 교수님께 인터뷰를 거절당했을 땐 아쉬움도 컸지만 여러 교수님께 다시 메일을 보내며 인터뷰를 요청했다. 다행히 한 교수님께서 전화 인터뷰를 흔쾌히 수락해주셨고 촉박한 일정 속에서 인터뷰를 준비했다. 인터뷰를 하면서 단순히 질문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다시 여쭙고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학술 기사를 준비하며 무엇보다 어려웠던 것은 인터뷰 섭외와 진행이었다.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하고 질문을 건네 답변을 받는 과정이 부담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대학보 활동을 하며 두려워도 철저히 준비하고 직접 부딪혀보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실제로 여러 차례 망설였지만 결국 직접 인터뷰를 진행하며 기사를 완성할 수 있었다.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막상 해내고 나니 생각보다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자신감과 뿌듯함이 남았다.

외대학보 활동을 하며 하나의 사안을 이전보다 훨씬 깊이 들여다보게 됐다. 단순히 글을 쓰는 것에서 나아가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독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됐다. 아직 부족한 점은 많지만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싶다.



정일성 기자

[책 '아인슈타인의 꿈'을 읽고] 천재 물리학자의 꿈속에서 우리의 진짜 시간을 마주하다

사람들은 흔히 물리학과 문학은 정반대의 학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두 분야가 맞닿을 수 있는 접점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前) 물리학자이자 현(現) 인문학 교수로 재직 중인 라이트먼(Lightman)이 결합한 과학과 인문학의 만남은 그 접점이 얼마나 예술적인지 증명한다.

물리학의 꽃을 피운 아인슈타인(Einstein)은 자신의 친구 베소(Besso)에게 시간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한다. 사실 아인슈타인은 대략 두 달간 특이하고 오묘한 꿈을 꾸고 있었다. 지난 1906년 4월 14일부터 6월 28일까지 아인슈타인의 꿈속 배경은 매일 시공간이 색다르게 변형됐다. 시간의 차원이 세 개인 세계는 공간과 마찬가지로 시간 역시 스카로스(시공간의 시로 수직인 방향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각각의 미래에선 서로 다른 운명이 일어난다. 이 세 차원의 시간은 모두 실존하는 일이며 그 안엔 무수한 세계가 존재한다. 시간이 원 모양인 세계의 사람들은 시간이 정확하게 반복되는지도 모를 채 살아간다. 이는 개미가 상들리에를 돌아도 자신이 갇혀 있는 것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총말이 있는 세계는 모든 사람이 화목하며 부와 명예도 덧없는 것이 된다. 시간이 멈추는 세계에선 부모들이 자녀를 '시간의 중심' 즉 시간이 가만히 있는 곳으로 데려가 평생 순수한 아이의 모습을 간직하고자 한다. 그러나 다시 시간이 흐르는 곳으로 나오게 되면 그 아이는 성장한 후 부모에게 분노하며 그들을 저주하지만 이후엔 다시 본인의 자녀를 시간의 중심으로 데려가는 상황이 반복된다. 기억이 없는 세계에선 사람들이 매일 서로에게 통성명하며 스스로 기억하도록 일기를 쓴다. 부부 역시 매일 처음 보는 사람처럼 서로를 열정적으로 사랑하게 된다. 미래를 볼 수 있는 세계는 모험하는 일 없이 그 미래를 그대로 따르기 위해 노력한다. 그

러나 가끔 미래를 거스르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 역시 필연적으로 피하려 했던 미래를 맞이한다. 시간을 측정할 수 없는 세계에선 시간이 양이 아니라 질로 여겨진다. 어떤 두 사람의 만남은 시와 분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닌 눈길과 욕구로 형태를 띠 수 있다.

내가 가장 인상 깊었던 세계는 속도가 빠른 세계였다. 이 세계에선 사람뿐만 아니라 건물도 부산스럽게 움직인다. 이때 속도 효과로 인해 움직이는 사람에겐 시간이 더디게 흘러간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움직여 시간을 벌고 경쟁자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 한다. 하지만 운동 효과가 작음에 아무리 신속하게 움직여도 자신은 남들보다 더 느리게 보인다. 마치 기자 안의 사람에겐 나무가 빠르게 달려가는 것처럼 말이다. 이 세계는 우리 사회의 빨라빨라 문화와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과 닮아있다. 그리고 남들과 아무리 비교해도 항상 자신이 가장 뒤처져 보이는 것 역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열등감을 표현한다.

역사적으로 아인슈타인은 시간이란 추상적 개념을 가장 물리학적 측면에서 정의한 과학자이다. 이런 아인슈타인이 꾸는 꿈속 시간의 다양한 양상은 낯설면서도 어딘가 현실 세계의 시간과 닮아있다. 이 책을 덮고 나면 우리는 자연스레 스스로에게 과연 나는 지금 어떤 차원의 시간을 살고 있으며 내게 주어진 이 찰나의 순간들을 어떻게 채워 나갈 것인지 묻게 된다. 정신없이 하루를 살아가는 대신 물리학과 문학이 결합한 이 경이로운 세계를 통해 진정한 시간의 주인이 되는 법을 고민해 보면 어떨까.

송주원 기자 11juwon@hufs.ac.kr

[영화 '히로시마 내 사랑'을 보고] 히로시마와 느베르 사이 겹쳐진 시간

[영화 '히로시마 내 사랑'을 보고]

히로시마와 느베르 사이 겹쳐진 시간

"너는 히로시마에서 아무것도 안 보았어. 아무것도" "나는 모든 것을 보았어. 모든 것을" 영화 '히로시마 내 사랑'은 이 짧은 대화를 통해 스스로의 방향성을 먼저 드러낸다. 영화의 시작에서 누군가는 히로시마를 기억한다고 말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결코 볼 수 없었다고 말한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말이 옳은가 아니다. 이는 처음부터 기억이라는 것이 완전한 재현도 망각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프랑스 감독 알랭 레네(Alain Resnais)는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라는 거대한 역사적 사건과 한 여성의 사적인 기억을 포개 놓는다. 그 결과 영화는 전쟁을 직접 설명하기보다 시간이 인간 안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에 집중하게 된다.

영화는 히로시마에 머무는 프랑스 여배우와 일본인 남자의 만남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반전(反戰)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 일본을 찾은 여자는 한 일본인 남자와 가까워지고 두 사람은 짧지만 강렬한 시간을 함께 보낸다. 그러던 중 남자는 여자에게 과거에 대해 묻고 여자는 프랑스의 작은 도시 느베르(Nevers)에서 있었던 기억을 털어놓기 시작한다. 그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병사와 사랑에 빠졌지만 전쟁이 끝난 뒤 적국의 남자를 사랑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모욕과 폭력을 당했다. 연인이 죽은 뒤 그녀는 머리가 깨진 채 지하실에 갇혔고 오랜 시간 홀로 고통을 견뎌야 했다. 히로시마에서의 만남은 그녀가 묻어 왔던 기억들을 다시 현재로 끌어올리고 영화는 현재의 히로시마와 과거의 느베르를 교차시키며 이야기를 이어간다. 마지막 장면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이름 대신 '히로시마'와 '느베르'라고 부르며 헤어진다.

이 영화가 특별한 이유는 사건보다 시간을 보여주는 방식에 있다. 영

화는 현재와 과거를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현재의 대화 속으로 과거의 이미지가 갑자기 스며들고 장면은 논리적인 순서보다 기억의 흐름을 따라 이어진다. 관객은 이야기의 원인과 결과를 따라가기보다 기억이 움직이는 방식을 체험하게 된다. 이는 프랑스 철학자 질 들뢰즈(Gilles Deleuze)의 책 『시네마』에서 언급된 '시간-이미지'와도 연결된다. 들뢰즈는 현대 영화가 행동 중심의 서사를 넘어 시간 자체를 드러낼 수 있다고 설명한다. '히로시마 내 사랑'은 과거와 현재 사이의 경계를 끊임 없이 흐트러뜨리며 관객이 시간의 감각 자체를 사유하도록 만든다. 영화 속 여성은 과거를 잊지 못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억 속으로 들어가기도 한다. 그녀의 첫사랑인 독일 병사에 대한 기억은 사라지지 않은 채 남아 있고 히로시마에서의 만남은 그 위에 또 다른 시간을 덧입히는 것이다. 영화는 기억이 단순히 오래도록 남아있거나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기억들과 겹쳐지고 변형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래서 『히로시마 내 사랑』은 단순히 전쟁 이후의 사랑을 다룬 영화로 남지 않는다. 이 작품은 영화가 철학을 설명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철학적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한다. △연속적 이미지의 정면△침묵 반복은 단순한 연출 기법이 아니라 기억과 시간에 대한 질문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기능한다. 영화는 끝까지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대신 장면과 장면 사이의 틈을 남겨 두고 관객 스스로 기억과 망각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관계를 생각하게 만든다. 그렇기에 『히로시마 내 사랑』은 영화를 본다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시간을 통과하고 능동적으로 사유하는 경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서영 기자 12seoyoung@hufs.ac.kr

1115호 학보를 읽고

일상의 이면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일상의 풍경 속엔 누군가의 노력과 목소리가 담겨 있다.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 가치는 결코 작지 않다. 1115호는 그런 일상의 이면(裏面)을 구체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먼저 3면에선 우리대학 제60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선명'(이하 선명)의 인터뷰를 다룬다. 선명은 재선거를 통해 당선된 만큼 짧았던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성적 평가 방식 합리화△전공 강의 개설 수요 기반 제도화△퀸쿠아트리아(QUINQUATRIA) 운영△학식 정상화 등 학내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며 임기를 시작했다. 특히 학사 제도 개선과 등록금 운영 투명화를 위해 재정 비전 2030 마스터플랜 수립을 요구하겠다는 공약은 장기적으로 우리대학의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명이 임기 동안 학생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어 6면과 7면 특별기획에선 외대학보 기자들이 직접 우리대학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의 하루를 담아내고 있다. 학내 곳곳의 △경비△도서관 청소△식당△영선·조경△환경미화 노동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전달한 점이 인상 깊었다. 평소 무심히 이용해 온 도서관과 강의실이 이러한 노동 위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다. 하나

이승원(중국·중외통 22) 서울캠퍼스 독자위원

의 거대한 공간을 관리하기 위해선 적지 않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와닿는 기사였다. 도서관에서 만난 한 노동자가 "학생들이 음료를 깔끔하게 버리고 페트병을 잘 버려줬으면 좋겠어요"라고 전했던 짧은 부탁처럼 이들의 수고에 응답하는 작은 실천이 학내 구성원 모두에게 필요한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4면 심층 기사는 가족돌봄청년 제도의 현주소를 다룬다. 정부 추정대로 약 15만 3,000명에 달하는 가족돌봄청년은 평균 6.72년 동안 하루 48시간을 가족 돌봄에 할애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학업과 취업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동시에 우울감 유발률이 일반 청년의 7배에 달한다는 통계 역시 이들이 처한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시행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의미 있는 첫걸음인 만큼 기사에 제시된 영국과 일본의 사례처럼 대상자 파악 체계와 중장기적 사례 관리 체계가 함께 보완되길 바란다.

외대학보는 잘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목소리를 꾸준히 비취낸다. 앞으로도 외대학보가 좁게는 우리대학의 넓게는 우리 사회의 이면을 꼼꼼히 살피며 더 많은 이들에게 사회 인식의 계기를 만들어주길 기대한다.

1115호 학보를 읽고

내일을 위한 오늘의 회고

눈부신 햇빛과 분주한 바람 속에 온갖 색깔의 움직임이 생동하는 입이다. 자꾸만 이리저리 변해가는 세상에 사는 우리도 저 너머를 가능하리라 바쁜 오늘날 외대학보 1115호는 내일을 말하고자 오늘을 돌아보고 있었다.

1면과 2면을 거쳐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춘 앞으로의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었다. △우리대학과 SIONIC AI와의 산학협력 MOU 체결△홍영희 NC QA 센터장 초청 '2026 HUFST특강'에서 우리대학의 경쟁과 접목돼 소개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2026년 대학 AI기반 교육과정 개발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교육혁신원 등 격동하는 내일에 관한 이야기는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다.

그러나 △4면에서 소개한 가족돌봄청년 제도의 현주소와 과제△6면에서 7면으로 이어지는 노동절 기쁨으로 특별 기획된 보이지 않는 우리대학 노동자들의 하루△8면의 불법 웹툰 생태계의 원인과 현황 등의 가깝고도 그늘진 기사는 멀리 있는 광채를 보던 내 눈의 동공과 수정체가 확대되고 두꺼워지게 했다. 근래 들어 조금 더 두드러졌을 뿐이지 우리 늘 주위를 살피기보단 앞만 바라보길 더 좋아했던 것 같다.

그러나 안에서부터 굵은 상처는 더 흉한 아픔이 되기 마련이다. 우리 내일에 눈멀지 말고 오늘에 주의를 집중해야 한단 것을 느꼈다. 우리 기존의 모든 가치와 체계에 변동이 생길지도 모르는 인공지능 시대라는 거대한 흐름 위에 놓여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일수록 우리 본질적인 가치인 인문학을 최고의 가치로 두며 중심을

안현태(자전 26) 글로벌캠퍼스 독자위원

유지해야만 한다. 불안정한 정책과 제도에 의구심을 던지고 고된 일상에 감사와 개선 의지를 보이는 것이야말로 요동치는 파도 위에서라도 안정적인 서평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일 것이다.

3면에서 다룬 제60대 총학생회장단 '선명'과의 인터뷰에서도 이를 느꼈다. 도입된 제도를 검토하고 기존 문제를 정상화하겠다는 멋진 계획은 '앞으로'를 위한 '지금'의 성찰을 토대로 한 믿음직한 포부였다. 임기 동안 우리대학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힘쓰는 총학생회장단이 되길 바라며 우리대학의 일원으로서 그들을 응원하겠다.

△4면△7면△8면에서 보이듯 외대학보는 기사에는 '나아가야 할 방향'이란 단락을 줄곧 구성한다. 굳이 그 단락이 아니더라도 내일과 지향점을 이야기하는 부분도 많다. 그리고 그 부분이야말로 기자들의 심사와 속고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인듯 하다. 오늘의 일을 맡아 내일을 말하는 것이 바로 기자와 기사의 참된 역할이 아닐까.

10면과 11면에 펼쳐진 열린 공간에서 찾은 사실은 변화하는 시대에서 교육의 의미를 되묻고 있었다. 'HUFST'라는 네 글자에 담긴 교육의 △내용△방법△분류△환경에 대한 고찰을 읽고 과연 기존의 체제와 관행이 흔들리는 오늘날의 과도와 그 중심에 선 우리 지금의 세계에 대한 적응과 내일을 쌓는 것에 집중해야 할지 아니면 새로운 청담을 짚아가기 위한 도전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에 이르게 됐다. 이는 아마 우리 세대가 맞이할 가장 큰 고민거리일 것이다.



국·부장 고정칼럼

태양은 작열(灼熱)하고

5월 중순의 태양은 벌써 우리에게 뜨거운 햇빛을 선사한다. 본격적인 여름에 접어들기 전 마지막 길목에 다다른 듯한 계절이다. 이글 이글 타오르는 것은 태양만이 아니라 우리 학보사의 열정도 마찬가지다. 이번 1116호 역시 외대학보 기자들이 땀 흘리며 치열하게 써 내려간 기사들로 이루어져 있다.

4면에선 우리대학 각종 디지털 플랫폼의 언어 지원이 미흡하다는 문제를 다뤘다. 45개 외국어를 교육하며 독보적인 '외국어 대학'으로 자리한 우리대학이 정작 핵심 플랫폼의 외국어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유학생의 불편을 낳을 뿐 아니라 우리대학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벽이 된다. 우리대학이 글로벌 언어 교육기관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디지털 시스템의 다국어 지원에 힘을 실어야 할 시점이다.

6~7면에선 특별심층을 구성해 다가오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조명했다. 6면에선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을 담은 인터뷰를 7면에선 우리대학을 포함한 동대문구 3개 대학이 주최한 동대문구청장 후보자 간담회의 내용을 다뤘다. 후보자들은 저마다 서울시와 동대문구의 발전을 이루기 위한 공약을 제시하며 대학생들과 소통했다.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청년 대학생들이 투표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해 더 나은 동대문구와 서울시 나아가 우리나라의 미래에 기여하길 바란다.

이어지는 8면에선 지난 5일 세간에 충격을 안긴 광주 문지마 범죄 사건을 계기로 이전부터 반복돼 온 우리 사회의 문지마 범죄 문

제를 들여다봤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지마 범죄의 가해자는 대개 불우한 환경에 놓였거나 온라인 세상에 빠져 잘못된 가치관을 형성한 채 사회로부터 고립된 개인이다. 혐오와 고립이 맞물려 빚어지는 문지마 범죄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길 희망한다.

어김없이 지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12면의 인물 기사에는 나영남 우리대학 교수(이하 나 교수)의 인터뷰를 실었다. 나 교수는 동양사 연구 및 저술 작업을 이어왔으며 현재 우리대학 필수 과목인 미네르바 교양을 가르치고 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사고를 넓혀주는 인문학이 침체해가는 지금의 현실 속에서 나 교수가 전하는 인문학의 따뜻한 가치는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갈고닦아야 하는 힘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비록 실용학문에 가려져 소외되더라도 인문학은 결코 대체될 수 없는 학문으로서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라 믿는다.

많게만 느껴졌던 열두 면을 빠짐없이 채우기 위해 고뇌하는 일은 어느덧 일상이 됐다. 모든 내용을 담아낼 수 없어 아쉬울 때도 많다. 폐만 끼치지 말자는 생각으로 긴장 속에서 시작했던 외대학보 생활에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진심이 됐다. 이 뜨거운 마음이 지면 너머 독자 여러분께도 고스란히 가닿기를 바란다.

백채린 기자 11chaelin@hufs.ac.kr



문해력의 위기

"심심한 사과 말씀 드립니다." 과거 한 행사 주최 측이 일정 변경 안내문에 사용한 표현이다. 그러나 주최 측의 의도와는 다르게 "왜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느냐"는 항의가 쏟아졌다. "심심하다"에 "깊고 간절하다"는 뜻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한 것이다. 비슷하게 사흘을 4일로 오인하고, 금일을 금요일로 이해한 경우도 있었다. 그때마다 모두들 해당 상황에 대해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 개개인의 문해력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문해력은 단어가 놓인 맥락을 읽어 내는 능력으로, 단어 하나하나의 뜻이 아닌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는 능력이다. 이는 행간을 읽고 어조를 기능하며 발화자가 처한 상황까지 헤아리는 종합적인 능력이다. 앞선 사례에선 "심심하다"라는 단어의 뜻에 집중하기보다는 왜 이 단어를 사용했는지를 짐작해 뜻을 유추할 때 우린 문해력이 좋다고 판단한다.

문제는 문해력이 기술 환경의 변화 속에서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긴 콘텐츠가 쇼츠나 릴스나 같은 짧은 영상으로 압축되고, 대학생들은 생성형 AI를 강의 자료를 요약하고 있다. 신문, 보고서, 논문, 책을 읽을 때에도 생성형 AI에게 도움을 받아 핵심만 골라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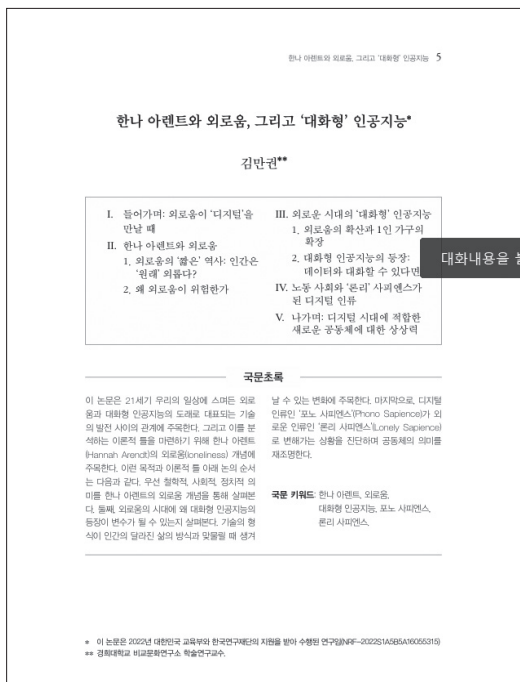
물론 요약은 효율적이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는 점에선 효율적이다. 그러나 모든 압축에는 손실이 따른다.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생략되면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개인의 기준도 함께 사라지게 된다. 감정과 상황이라는 부가적 정보에 대한 생각 또한 줄어들게 된다. 회의에서 보고서의 요약본만 보고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검색 결과의 상단 답변만으로 사안을 판단하는 장면은 이미 일상이 됐다. 더 큰 문제는 빠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맥락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노력이 점차 불필요해지면서 점차 AI 사용자는 "생각하기"보다는 "읽기"에 집중하게 된다.

읽기와 생각하는가 분리된 환경에서 문해력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닌, 작은 절차들에 의해 지탱될 수 있다. 요약된 결론을 받아들이기 전에 원문을 한 번 확인하고, AI가 제시한 답변에 만족하지 않고 그 근거를 먼저 살펴보는 일이 그 시작이 될 수 있다. 신문이든 우리대학의 교내 언론이든, 한 편의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 읽게 하는 매체가 자리를 지키는 이유도 결국 그런 절차가 가능한 자리를 남기는 데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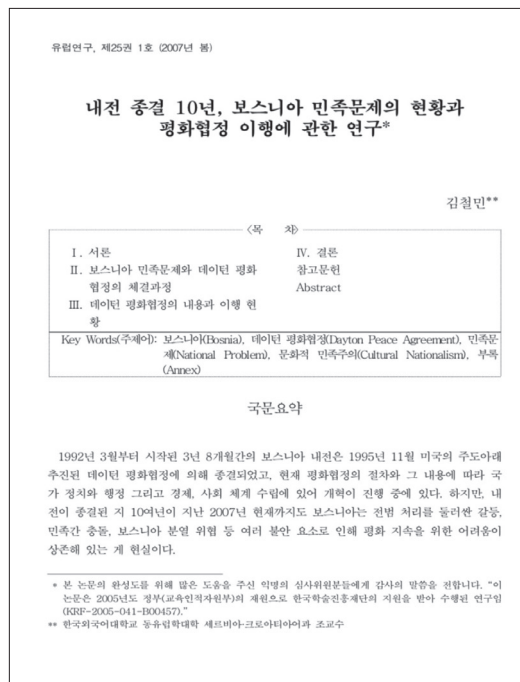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현재,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데이터가 아닌 그것을 천천히 다룰 시간인 것 같다. 결국 문해력은 일정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 결론에 도달하기 전까지 과정을 한 번 더 돌아보고, 맥락을 확인하는 상황들이 쌓일 때 비로소 우린 "심심한 사과"가 어떤 무게로 건네진 말이었는지 가능할 수 있다.

·현재우(외대학보 편집장)

기자들의 추천 논문



한나 아렌트의 '외로움' 개념을 통해 오늘날 대화형 인공지능이 사회에 주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며 AI 시대의 고립 문제를 새롭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논문은 고등학교 재학시절 지금의 전공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어 준 논문입니다. 1990년대 참췌했던 발칸반도의 내전과 불안정한 전후 복구의 시대적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국제 사회의 분쟁 해결과 평화 구축 과정에 관심이 있다면 꼭 읽어보세요

미래의 언론인, 113기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모집기간: 2026.05.18(월)~05.28(목)
모집대상: 양 캠퍼스 3학기 활동 가능한 재학생 (교육 기간: 08.05-08.28(3주))
지원방법: 외대학보 인스타그램 및 에브리타임 확인
면접일정: 05.30(토), 05.31(일) 중 (05.29(금)에 개별 안내 예정)
임기: 26-2학기~27-2학기
활동혜택: 언론 장학금 및 활동비 지급
 취재 교육
 자기 이름의 신문 기사 발행
 명함 제공
 좋은 사람들과 소중한 추억
문의: 현재우 편집장(010-4352-0512)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나호를 말하다'에 응모해주신 분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e-mail : 10jaewoo@hufs.ac.kr

외대 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강기훈
편집인 겸 주간 이상빈
편집장 현재우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학생회관 211호
www.hufspress.net

강의실 너머의 인문학을 전하는

나영남 교수를 만나다

나영남(서양어·노어 81) 우리대학 교수(이하 나 교수)는 미네르바교양대학 교수이자 동양사 연구자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동양사에 대한 꾸준한 연구를 바탕으로 발해와 요·금 관련 여러 서적의 편저 작업에 참여한 나 교수는 이에 그치지 않고 연구를 통해 얻은 인문학적 통찰을 미네르바 교양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하고 있다. 다양한 학문적 시각을 바탕으로 인문학적 소양을 전하는 나 교수를 만나보자.



Q1. 우리대학 노어과에 입학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입학 당시에는 뚜렷한 목표 의식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주변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진학을 준비했고 당시 성적과 담임 선생님의 권유로 노어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소비에트(Soviet) 연방 공화국은 낯설고도 거대한 세계로 느껴졌고 그런 새로움 자체가 오히려 제게는 흥미롭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Q2. 우리대학 재학시절 어떤 학생이었나요?

대학 시절 아주 모범적인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제 학창 시절은 방황과 좌절의 연속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꼈던 열등감과 남들이 원하는 모습과 사회가 인정하는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는 압박감을 무언가를 성취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러한 감정들은 제 삶의 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 자신이 늘 부족하다고 느끼기에 더 깊이 고민하고 버티면서 자신을 단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당시의 실패와 방황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이후 삶의 많은 시련을 견디고 극복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길러주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Q3. 재학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무엇인가요?

저는 동아리 활동이나 학생운동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마음껏 젊음을 즐기며 보내지도 못했습니다.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으로 외무고시를 준비하며 지내던 중 축제 기간에 한 후배의 권유로 학생들이 운영하던 주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여학생을 만났고 그 인연이 결혼까지 이어져 여전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치열하고 불안했던 대학 시절이었지만 동시에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을 만나게 해준 시기였습니다.

Q4. 노어과에 진학하셨지만 이후 중국사 및 동양사 분야로 박사과정을 이어가셨습니다.

학문적 방향이 바뀌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거 저는 역사학을 전공하고 싶었으나 자크 라캉(Jacques Lacan)의 표현처럼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 결과로 노어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직장 생활과 개인사업을 하며 어느 정도 경제적 자유를 얻었으나 시간이 흘러 40대에 이르자 더 이상 그 꿈을 외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업을 정리한 뒤 만학도로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학부 시절에 러시아어를 전공하며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던 유라시아 세계와 유목사에 대한 관심이 긴 우회 끝에 동양사 연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Q5. 교수님의 연구를 보면 △거란△발해유민 △북송△여진과의 관계 등 북방 민족과 동북아 질서에 관한 주제가 많습니다. 이 시기의 역사가 가진 매력과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단순히 특정 국가의 흥망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와 문명이 충돌하고 공존하며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매력이 있습니다. 거란과 여진은 단순한 변방 민족이 아니라 당시 국제질서를 능동적으로 재편한 주체들이었으며 발해 유민의 이동과 적응 과정 역시 그 문화와 기억이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역사는 변화 속에서 어떻게 공존하고 살아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묻는 과정이며 북방사는 중심이 아닌 경계와 주변의 시선에서 세계를 다시 바라보게 만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Q6. 논문 뿐만 아니라 요·금 및 발해와 관련해 다양한 저술 작업에도 참여해 오셨습니다. 연구하신 바를 글로 풀어내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역사 서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인간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단순히 사건과 연도를 정리하는 작업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불안△선택△생존△욕망을 이해하는 일이라

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학술적인 글이라도 그 안에 인간에 대한 공감과 성찰이 함께 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과거의 이야기를 오늘의 언어로 풀어내어 사람들이 현재를 돌아보게 만들고 더 나아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 연구자의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을 쉽게 전달하되 지나친 단순화나 자극적인 해석으로 흐르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Q7. 우리대학 미네르바 교양은 수업의 방식과 다루는 내용의 범위가 매우 폭넓은 편입니다. 교수님의 수업 방식과 가장 강조하시는 교수님만의 철학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느낀 오늘날의 교실은 침묵의 바다에 가깝습니다. 전달되는 지식들은 넘쳐나지만 질문과 사유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기보다 스스로 질문하고 사고하는 힘을 길러주는 수업을 하고자 노력합니다. 인문학은 정답을 암기하는 학문이 아니라 익숙한 세계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권력△불안△이념△욕망△정의△행복 등과 같은 문제들은 시대가 바뀌어도 반복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고전을 통해 오늘의 삶을 성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정답보다 좋은 질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질문하는 힘이야말로 자신의 세계를 넓히고 자신만의 언어와 시각을 만들어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Q7-1. 인문학이 소외되고 취업에 직결된 실용학문이 중시되는 오늘날 학생들이 인문학적 소양을 갈고닦는 것이 앞으로의 삶이나 진로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오늘날 학생들이 취업과 생존의 문제 속에서 실용적인 기술과 즉각적인 성과를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현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오히려 인문학적 소양이 중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듯 인문학은 단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고 스스로 질문하는 힘을 길러주는 과정입니다. 결국 인문학은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 위한 사고의 기반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는 단순한 정보 습

득보다 '무엇을 질문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와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문학은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며 스스로 판단하고 질문하는 힘을 길러주는 중요한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Q8. 앞으로의 연구 목표 및 계획이 궁금합니다.

저는 곧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늘 앞만 보며 치열하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직장생활△개인사업△늦은 나이에 다시 시작한 학문 연구와 강의까지 쉽지 않아 삶을 채워오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사회적 역할과 책임 속의 삶에서 조금씩 벗어나 보다 '나 자신'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거창한 성취보다는 마음속에 담아두던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정리하고 실천해가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물론 역사 연구에 관한 관심까지 내려놓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전처럼 결과와 성과에 쫓기기보다는 조금 더 여유롭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역사와 삶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Q9. 마지막으로 우리대학 후배들과 인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후배들에게 무엇보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쉽게 불안해지고 뒤쳐졌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사람마다 자기만의 속도와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빠르게 변하는 시대일수록 '왜 살아가는가?' 혹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인문학적 사고가 더욱 중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 시절에는 다양한 경험과 관계 형성을 소중히 여겼으면 합니다. 학점이나 스펙보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얻은 경험과 배움이 삶의 자산이자 경쟁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Just do it!"이라는 말처럼 일단 부딪혀보고 경험해 보길 바랍니다. 후배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임재연 기자 11jaeeon@hufs.ac.kr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그들과 열매를 나눌 수 있는
거목과 같은 사회공헌기업(CSR)을 지향합니다



Forbes Asia's 200 Best Under A Billion
10th Sep. 2009 / 1st Sep. 2010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2년 연속 포브스가
뽑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200대 유망 기업
(Asia's 200 Best Under A Billion)에 선정 되었습니다.

국내 뿐 아니라 세계 40여개 국에 수출하는
한국인이 주인인 다국적 제약기업입니다.
예술문화사업, 글로벌 인재육성사업,
여러나라에서 펼치는 다양한 사회봉사활동
등을 통해 세계 도처에서 한국의 열과 문화를
수출하는 글로벌 사회공헌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다국적 제약기업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www.kup.co.kr